금주의 법구-〈아함경〉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나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의지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14일)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취임하면서 "종도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의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사진은 원행 스님과 취임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며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종도와의 약속 소중히, 희망의 미래불교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조계사서 5000여 대중 운집
불교 · 정관계 · 시민사회계 등
한국불교 혁신 기대 나타내

장애아동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취임법회에 함께해 의미 더해
원행 스님, 대사회 역할 다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앞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종단 화합과 불교 대사회 역할 등에 방점을 찍은 원행 스님의 취임식에는 승가원 장애아동과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종도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의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조계종은 11월 13일 총본산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법회'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원행 스님 취임법회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각급 신도 · 포교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타종단을 대표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타종교를 대표한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계종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사부대중이 소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화합은 상생하는 연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화합은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취하고, 서로가 낮춤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수행자들은 용맹정진으로 수행의 등불을 높이 올리고, 중생들의 삶을 위무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앞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면서 한국불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제36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저는 종도와 국민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승가는 승가답게, 불자는 불자답게, 사부대중 모두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탁마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각계각층이 전한 취임 축하

취임을 축하한 화환 증정에서 원행 스님은 오랫동안 인연을 다져온 승가원 장애아동과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화환을 받기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가 눈길을 끌었다. 승가원에서는 김수민 어린이, 나눔의집에서는 강일출 할머니가 원행 스님에게 화환을 전달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격려사에서 "총무원장스님이 제시한 희망의 원력과 발전적인 종책들이 완수된다면 1700년 불교 위상을 회복하고, 종단발전과 국태민안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늘 신뢰와 행복과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도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대자대비부처님이 일깨워주신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가진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온 국민이 함께 잘사는 번영의 열매를 맺고, 남북 온 겨레가 평화의 바다에서 만날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이 원행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특히 나눔의집을 대표해서 이옥선 할머니는 "20년 넘게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도와주신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바쁘더라도 나눔의집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해 감동을 남겼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의 축전도 이어졌다. 끝으로 사부대중은 "사회의 어두운 곳 어디라도 친절하게 다가가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길 발원한다. 저마다의 부지런함과 헌신이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에 다다르는 가장 바른 길임을 증명하겠다"고 발원했다.

생애 주기별 '신행 앱' 완성

조계종, 청년 마음거울 선보여
2012년 사업 도입, 5부작 완성
연령 맞춤 수행 프로그램 제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2012년 야심차게 추진한 연령별 마음거울 108앱 사업이 11월 14일 청년 마음거울 108앱 출시와 함께 완성됐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마음거울 108앱은 어린이, 청소년, 중년, 어르신에 이어 2030연령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애플리케이션이다.

청년 마음거울 108앱은 크게 △ 1장- 나, 존재하다 △ 2장- 나, 열정을 품다 △3장- 나, 가치를 만들다 등 3가지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업과 취업으로 바쁜 청년세대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증대시키고자 108가지의 자신감을 주는 따스한 문구와 수려한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2년 교과부의 청소년 폭력, 게임중독 등 문제의 해결에 불교계가 나서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음거울 시리즈 개발에 나섰다.

총 5부작으로 구성된 마음거울 시리즈는 △2012년 어린이 · 청소년들의 인성과 심성교육용인 '어린이 마음거울 108', '청소년 마음 거울 108'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2015년 노년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도록 하는 '어르신 마음거울 108'로 확장됐다. 2016년에는 이 아래 세대인 중년세대들의 마음의 행복감과 자존감 증대를 위한 '중년 마음거울 108'을 선보이기도 했다.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108가지 발원문과 일러스트가 탑재돼 절 수행과 함께 마음의 안정과 평화, 관계의 개선 등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전국 사찰의 어린이 법회,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청소년 마음등불 캠프에서 활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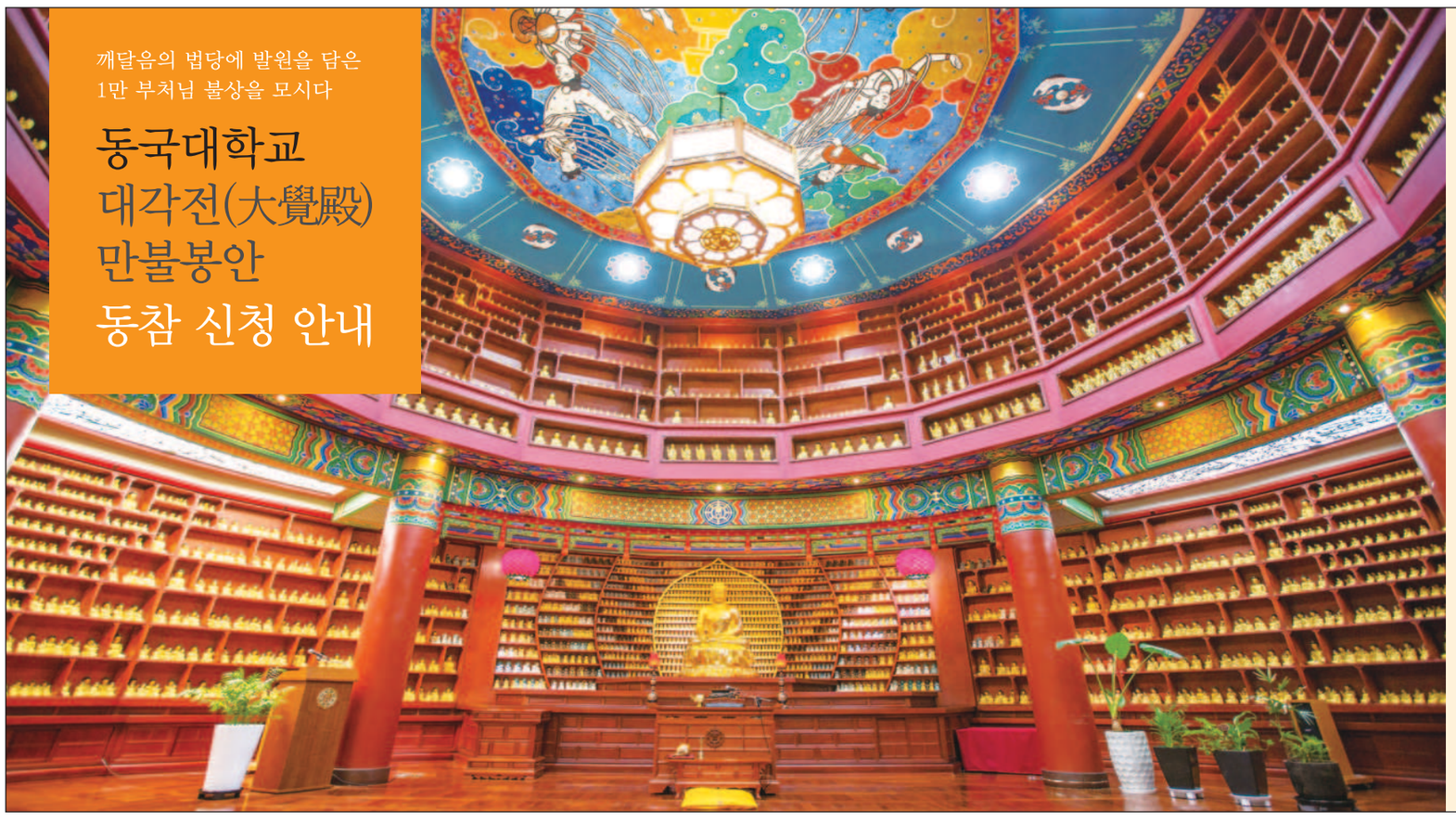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수행에 들어가기 까지 중간단계와 통로가 중요한데, 생애주기별 108앱으로 이런 통로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포교원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신행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완성된 '마음거울 108 앱 시리즈'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체계적으로 스스로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6년 동안의 사업 성만에 지홍 스님은 그동안 제작을 맡아 온 원일훈 홍익대 교수와 앱개발을 지원해 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 이경호 마마파파앤베이비 산부인과 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깨달음의 법당에 발원을 담은
1만 부처님 불상을 모시다

동국대학교
대각전(大覺殿)
만불봉안
동참 신청 안내



발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동국발전** : 동국대학교와 불교중흥 발원
– **소원성취** : 각종 소원성취 (입시, 건강, 행복 등) 발원
– **가족행복** :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발원

만불봉안 동참 방법

■ 동참 금액
1백만원 / 3백만원 / 5백만원
동참금액은 전액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적용되며,
동국대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 신청 기간 : **2018. 11. 22.**(목) 까지

■ 문의 전화 : **02–2260–3300** (동국대 대외협력처)

2018년(불기 2562년) 봉안 법회

■ 일시 : **2018. 12. 1.** (토) 오전 10시
■ 장소 : 동국대학교 대각전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전통문화 외면한 국가정책 전환”

조계종 중앙종회, 213회 정기회서 결의문 채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고속도로 표지판 문화재명 철거 논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이 조계종단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속개한 제213회 정기회서 ‘전통문화 외면 국가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가 이 땅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표지판 국가지정문화재 안내 철거 시도 △소통 없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공원 존속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원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민관이 함께 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등
소통 없는 정부 태도 지적
인사안 · 특위 구성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통사찰 등 사찰소유토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니라 전통사찰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토지다. 불편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중앙종회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민족 전통문화가 온전히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번 회기서 각종 인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먼저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성효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는 종열 · 도법 · 법보 · 영조 · 심경 · 성월 스님이, 공석인 초심호계위원에는 성화 · 태허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법규위원에는 정인 스님, 소청심사위원에는 보경 · 탄문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도현 스님이 선출됐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교육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성우 스님과 자현 스님에 대한 동의를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현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과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인 소림 · 행돈 · 묘관 · 자민 · 법희 · 수현 · 혜운 · 자행 · 불필 · 자광 · 재운 스님에 대한 동의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특별전형은 추후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기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재연 · 지안 · 대전 · 승원 · 무애 · 광전 · 혜원 · 지형 · 일진 스님에 대한 동의와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헌종법 상 입법 미비를 바로 잡을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함결 스님,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민 스님이 임명됐으며, 위원 임명은 의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이외에 법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이월했으며,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중앙종회 내 의례심사특위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서 다루기로 했다. 의례심사특위 위원장은 혜일 스님이 맡았다. 아울러 종무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하고, 종책질의는 이월해 중앙종무기관 주무부서의 답변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종회는 이 같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1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앞당겨 폐회했다.

원행 스님 “법난기념관 부지 이전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서 계획 변경 의사 밝혀

서울 조계사 일대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 타 부지로 변경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을 받고,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조계사 일대에 법난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매입해야 하는 건물의 건물주들이 제시한 금액이 시세 대비 몇 배 높고,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허물 수 없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지 변경을 위해 조계사가 아닌 서울시내 등 20~30곳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성역화 사업은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현재 설계도면까지 나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도 조계종에서 잘 추진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한 봉은사 중창불사 계획과 관련해 “지상 · 지하를 나눠 불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원행 스님과 박 시장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

있다. 임대해놓은 인근 예식장이 (조계종에)돌아오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봉은사 인근 GBC나 영동대로 개발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영동대로 개발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버스 등 광역환승센터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며 “현재 개발 이후 지하에서 봉은사로 길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예방에는 서울시 측에서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과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이, 조계종 측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기획실장 오심 스님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내년 일반예산 282억 원

11월 15일 제107차 정기종의회 결의

천태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이 약 2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11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107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이 같이 의결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2019년도 일반예산은 206억670여만원,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은 75억7300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종의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승니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종단 스님들의 원활한 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종의회는 11월 13일 개원 후 총무 · 법제 ·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주)금강신문을, 법제분과위원회는 감사원 · 규정부 · 사회부 · 천태종복지재단 · (사)나누며하나되기를, 재무분과위원회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 천태종 특별 예산안 ·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예산안 · 재무부 ·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예산안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가 끝난 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교시를 통해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따라야 세속 법도 잘 지킬 수 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비움은 여백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광활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연연(戀戀)하지 않고 자아를 비움으로써 볼 수 있는 텅 빈 자리입니다. 그 여백은 자유롭고 걸림 없는 허공 같은 마음입니다. 불교는 비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일본 메이지시대에 어느 대학교수가 난닌(南隱)선사를 찾아가 선(禪)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은 교수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에 차가 넘쳐흘러도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라보


비움은 여백 그림 · 조향숙

여백은 무량광명불 자리
염불하듯 절하듯 겸손
‘나’ 비우면 모든 이웃 행복

던 교수가 말했습니다.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이 잔처럼 그대는 자신의 견해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네. 먼저 그대의 잔을 비우시게. 그래야 진리를 체험할 수 있소.”

널리 알려진 이 일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300만 독자들이 곁에 두고 있다는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지식에 집착하면 진리를 체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苦)가 생깁니다. 넘치는 찻잔을 비우듯 마음을 비우고 열어야 합니다. 고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일체가 인연따라 생멸하는데 집착의 대상에 실체가 있다고 붙잡고 매달리니 좋고 나쁨의 분별이 나오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선과 악, 극락과 지옥,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욕구하면 업력이 생겨 끄달리므로 삶이 괴롭습니다. 이고득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력을 보는 기회가 생겨 분별과 욕구를 내려놓으면 이 세상에 고는 없습니다. 일심 법계에 분별 망상을 쉬면 여래와 함께 합니다. 처처가 행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홀가분한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것에 국집하는 아만을 놓으면 무집착의 안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않으면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무상을 통찰하면 무착심이 나오고 무착심에서 이웃에 대한 자비가 나옵니다.

*놓고 비우기 위해 하염없이 몸으로 절 공양을 하고, 입으로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 원력을 다지세요. 그렇게 닦으면 공덕이 생겨 만나는 사람들에게 염불하듯 칭찬을 하고, 절하듯 겸손해 집니다. 내가 비우면 만나는 인연마다 행복합니다.

수행한 만큼 원력이 건강해집니다. 몸 정진, 입 정진, 마음 정진의 원력이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인연들에게 쓰세요. 물난리 난 곳에, 이웃돕기 ARS전화에 동참하면 부자현상이 생깁니다.

내 속의 나쁜 한 중생 한 중생을 소멸하려면 분수에 맞게 보시하세요. 선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공 영가에게까지 공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이익되게 하면 세세생생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혜가 들어와 복혜쌍족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몸과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비움은 무량 광명이 상주하는 부처님의 자리, 내 안의 광활한 여백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은퇴신도 욕구 진단… 활동 분야 개발해야”

천태불교硏, 10일 ‘고령사회’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령사회에서 사찰 운영과 복지 방안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10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맞는 신도 복지와 종단 참여 방안 등을 제언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은퇴신도의 종단 활동과 기여 방안 모색’을 통해 은퇴신도에 대한 욕구 진단과 이에 대한 종단적 대처를 주문했다.

백도수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상기시키고, “2020년이면 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돼 노인이 새로운 문화수요계층으로 부각되며 은퇴자의 종교활동도 신풍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퇴신도는 주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사찰과 단체와 연계해 활동하는 역할자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은퇴신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 계층에 대한 종단 차원의 욕구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백도수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은퇴신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부가 필요하고, 은퇴신도의 욕구를 종단 차원에서 진단해 대처해야 한다”면서 “종단(천태종)과 종단 산하단체에 은퇴신도를 위한 공간과 시설, 수용시스템 ·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은퇴신도의 능력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종단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좋은 활동모델들을 사례별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팀별, 사례별로 종단과 종단 산하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나 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는 천태종 차원의 노년 생활공동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혜숙 교수는 선행 조사들을 통해 노년 불자들이 재정형편을 걱정하고 행복감이 적은 상황임을 진단하며 종단 차원의 실버 공동체 설립을 주장했다.

‘노년기 불자의 건강과 수행 프로그램’을 발표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을 통한 노년 불자들의 건강 증진 방안을 제언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김응철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문화현상을 치유명상으로 연계시켜 활용하는 생활 명상”이라며 “사찰에서 이런 원리를 활용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노인들의 육체 · 정신 건강은 물론, 포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11월 10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단 차원 욕구 진단하고
은퇴신도 활동 기회 마련
종단-산하단체 연계 필요
실버 공동체 설립 제안도

사노위, “반인간적 살인단속, 멈춰야”

11월 19일, 미얀마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오체투지

조계종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고, 관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오체투지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서 청와대까지 ‘미얀마 딴저떼이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촉구 오체투지’를 봉행한다. 이날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동참한다.

미얀마 출신의 故딴저떼이(25) 씨는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피하다 사망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사노위는 “단속현장의 원본 영상 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김포경찰서는 편집본만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오체투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10년간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토끼몰이식 살인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간절한 몸짓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11월 10일 열린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서 7대 종단 신도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출발 전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반도 주인답게”…7대종교 함께 걷다

사회평화협, 11월 10일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

“7대 종단 신도들은 남북 영토가 하나 되는 ‘땅의 통일’을 넘어,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의 정서적 기반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시대 한반도의 주인답게 각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이사장 이기흥, 이하 사회평화협)는 11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서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를 개최해 종교간 화합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불교 등 7대 종교 평신도 대표를 비롯해 각 직능대표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걷기대회에 동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개회사 및 축사, 범종교인 한반도 평화다짐 선언문 낭독, ‘하나된 약속’ 애드벌룬 세레머니, 2인1조 걷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걷기대회에는 참가자들의 발걸음 수를 더해 한반도 총 둘레인 3,200km를 만들고, 한반도 전체가 하나돼 함께 걷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모양 지도에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며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영상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함께 길을 걷는 도반과 화합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다. 오늘 행사가 종교와 계층, 남과 북 등 모든 장벽을 넘어 상생과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통도사 종무원 기숙사 건립 ‘복지 선도’

상락재(常樂齋) 준공… “전국 사찰 첫 시도”

영축총림 통도사가 사찰에서 근무하는 종무원을 위한 기숙사를 준공했다. 전국 최초로 종무원 복지를 위해 지어진 신축 공간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자세로 불교계 복지 분야에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1월 9일 ‘종무원 기숙사 상락재(常樂齋)’ 준공식을 영축문화회관 내 기숙사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치사 △축사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찾아 치하하며 종무원 복지에 관심을 드러냈고, 주지 영배 스님과 율주 혜남 스님, 주요 국장단 스님들이 자리해 격려했다.

통도사는 기숙사 준공을 사부대중 공동체의 참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승가 공동체뿐 아니라 재가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방장 성파 스님은 “한국 사찰 가운데 종무원 복지를 위해 건물을 짓는 건 처음으로 안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승속을 구분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온 결과”라며 “주지스님의 열린 사고와 자비심이 만든 성과이니 근무하는 종무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9일 통도사서 종무원 기숙사인 ‘상락재’ 현판 가림막을 걷는 모습.

주지 영배 스님은 “처음 주지 소임을 맡은 뒤 종무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보고 前방장 원명 스님과 성파 스님께 간곡하게 요청해 개선 허락을 받았다”며 “종무원들은 종속관계도, 갑을 관계도 아닌 동체대비이자 하나 된 공동체 일환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취임 직후 산문 앞에 위치한 종무원 기숙 공간을 시찰하고 열악함을 확인, 2016년 2월 제70회 임회 때 기숙사 매입을 결의했다. 2016년 9월 영축문화회관 내 기숙사 현 부지를 선정했으며 2018년 2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기숙사는 연면적 약 1,525㎡(461평)에 지상 3층 규모로 방은 총 31개, 세탁실 및 취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통도사 종무원은 100여 명이며 기숙사 부족으로 장거리 출 · 퇴근 등 어려움을 호소하던 직원이 많았다. 언제나 기쁨이 있는 집, ‘상락재’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에서 따온 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환경연대, 11회 녹색불교포럼 개최

올 여름 역대 최고의 무더위를 갱신해 기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가운데, 불교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쓰레기 폐기물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불교환경연대 교육장 그린담마홀서 ‘제11회 녹색불교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의 연기성’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가 강연한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우리나라는 기후불량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문제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등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음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에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 발족한다

불교상담개발원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출범식

스마트폰 · 인터넷 중독 예방
70여 불교계 사찰, 기관 동참
관련 설문조사 및 현황분석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디지털 시대, 날로 늘어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불교상담개발원(상담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오용수 국장 등이 참여하고 기독교를 대표하여 양병희 한국기독교연합 증경대표회장, 한국가톨릭문화원장 김민수 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에는 중앙종무기관으로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기획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이 참여하며, 포교단체로는 포교사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동련, 신도단체로는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외에 불교교육연합회와 조계종 디지털 대학, 불교계 주요언론사가 함께 한다.

불교계는 정부의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의 움직임에 맞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무를 맡은 불교상담개발원은 7월 3일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배출한데 이어 중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지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약 60여 명이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 진흥원으로부터 10명이 예방강사에 위촉된 바 있다.

향후 불교스마트쉼운동본부는 '스마트쉼 사찰'을 선정해 법회와 기도 등 사찰행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생활 속에서 디지털 중독을 완화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기념세미나도 열린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현황 및 정책'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가섭 스님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불교적 해석' 발표도 이어진다. 가섭 스님은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서 환락을 찾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과의존의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또 지난 2018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표집한 325부의 성인, 유아,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 실태조사 중 297부를 분석하여 함윤서 HB 뇌과학연구소장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분석 및 불교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늘어난 만큼 중독 증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독을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 내에 있고 이를 불자 부모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 적극 알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7-7378

하상욱 시인과 떠나는 수험생 템플스테이

화성 용주사 12월 1~2일, 남양주 봉선사 12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오랜 시간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화성 용주사 · 남양주 봉선사와 함께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나눔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먼저 화성 용주사는 12월 1~2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템플스테이서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리더십을 배워보고, 스님과의 차담과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하상욱 시인 강연도 진행된다.

12월 8일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당일형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공부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광릉숲 걷기명상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역시 하상욱 시인의 강연도 진행된다.

용주사 템플스테이는 선착순 100명에 참가비 3만원, 남양주 템플스테이는 선착순 300명에 참가비 무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힐링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사찰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각 사찰당 선착순 85명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031)235-6886, 봉선사 템플스테이 (031)527-9969

윤호섭 기자

"정부-종교, 성평등 정책 마련에 관심을"

조계종 미래세대委, '미래세대 성평등' 주제 토론회

올해 초 불거진 미투운동 촉발로 성평등이 사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가 미래세대의 성평등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미래세대의 성평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출범 1주년 기념 2차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대화마당에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현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등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성차별 문제 현황과 대안 등을 토론했다.

변신원 교수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국가 발전수준과 비교해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며, 젠더의 문제에 관한 전근대적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노동권 문제에 젠더 문제가 포함돼야 함 △전 국민 대상 성 인권 교육 △여성 리더십 개발 위한 정책 마련 △성평등한 매체 생산 권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세대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미래세대의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3차 대화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석사관음상, 韓·日 해법 찾기 나선다

봉안위 등 11월 24일 부산서 토론회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일본 대마도로 반출됐다가 한국인 도굴꾼으로 인해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관련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전문가의 토론회가 열린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오후 1시 부산국제 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연구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와 히로세 유이치(廣瀨雄一) 前 부산여대 교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토론회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음상의 거취 문제와 함께 '한일양국 공동 유산으로 삼자'는 제3의 제안까지 토론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 측 발표자로는 김문길 소장이 나서며 일본 측 발표자로는 이가라시 아키라(五十嵐彰) 도쿄도매장문화재센터 연구원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 측에서는 부석사관음상 소송 대리인인 김병구 변호사, 〈서산부석사관음상의 눈물〉 저자인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모리모토 가츠오(森本和男)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저널리스트 칸노 도모코(菅野朋子) 씨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선한 김문길 소장은 "문화재 반환은 조성 내력, 유통 경로, 취득 경위, 소장자와의 상황, 외교적 관계, 국제사회 입장 등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며 '부석사관음상'은 이런 점에서 사례로서 가치도 충분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상호간에 진지한 성찰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대장경 · 희랑대사상, 서울 이운

국립중앙博, '대고려전' 앞두고 10일 이운행사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인사는 11월 10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건칠희랑대사좌상 이운행사를 개최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해인사 대장경판과 희랑대사상이 서울로 이운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과 해인사(주지 향적)는 11월 10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이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이운행사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고려의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대고려-2018 그 찬란한 도전'의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대고려전에 전시될 고려대장경과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1,000년 만에 그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희랑대사좌상을 해인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예를 갖춰 모시고 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의식이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고려 팔만대장경은 한국불교에만 있는 법보이며, 목판인쇄기구로서 양과 질을 놓고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며 "이번 대고려전을 통해 고려 팔만대장경을 친견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장경과 희랑대사상을 전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해인사에 감사드린다. 대고려전을 성황리에 열어 많은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北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오나?

조계종 민추본, 11월 29일 53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53차 월례강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할까요'를 11월 29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개최한다.

앞서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 자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의사를 밝힌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남북경협사업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민추본은 이번 강좌를 통해 4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및 과제를 짚어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 강사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나선다. 김 교수는 해군본부 전투발전단 해군전략개념과장과 국방부 대북협력정책담당 등을 역임했다. (02)720-0531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선수행 삼매로 추위 잊는다



조계사 선림원에서 재가자 안거에 들어간 불자들의 모습. 숙식 외에도 현대인들에게 맞는 야간 정진, 주말 정진 등이 눈길을 끈다.

[동안거 결재] 재가자 수행처 어디에?

3000여 재가자 30여 곳서 정진
주말 · 야간 등 형태 다양해
선어록 강좌 비롯 공부도 인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자들은 안거철이 왔음을 직감한다. 새롭게 선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나 실참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현장이 열린다.

한국불교계는 선풍진작이란 화두를 안고 있다. 그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올해도 선 관련 법석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간화선 수행의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도 참선입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상태다. 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교재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가자들의 수행에 대한 의욕도 나날이 커가고 있다. 특히 동안거에는 3000여 재가자들이 전국 30여 시민선원에서 수행을 하고, 직장인, 주부 등 재가선객들도 시민선방을 찾고 있다.

■재가자 참선 붐 시작

매년 여름과 겨울, 3000여 스님이 안거수행에 들어가는 결제를 본받아 재가자들의 참선 수행열기도 고조된다. 안거 때면 3000여 재가자들이 일제히 선방에 방부를 들인다. 매주 또는 매달 정기 철야참선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늘어나 스님 못지않은 용맹정진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시민선원은 재가자 안거수행을 하고 있는 30여 곳을 포함한 50여 곳.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은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사찰을 비롯해 재가자 수행모임도 생겨나고 있다. 이제 참선은 대중들의 수행 방편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4일 재가 동안거 입재식을 대대적으로 열고 일괄 안거에 들어간다. 홍법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찰들이 재가자 안거를 지원한다.

■선어록 · 수행모임도 증가

선어록은 선사들의 수행과정과 깨달음의 경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선수행에 앞서 선어록을 공부하는 것 또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에 이를 공부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안국선원, 금강선원, 공생선원 등이다. 불교인재원, 금강선원 등에서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남양주 봉선사의 경우에는 선우회 등에서 산철에는 매주 수요일 선어록 강좌 등으로 공부를, 결재기간에는 스님들처럼 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참선입문과정을 동안거에 앞둔 20일 개강한다. 선림원장 남전 스님이 지도해 선어록을 비롯해 다양한 강의와 문답, 주말 철야 수련회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깨닫는 일이야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 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인 주말 참선자리도

이와 함께 최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행처가 인기다. 주중에는 생업 현장에서 일하다,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바쁜 일과 속에 마음챙김을 하지 못하다가도, 잠시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어 인기다.

철야 참선 등을 통해 1주일간 못한 선정 삼매에 빠지면 다시 다가오는 한주가 가뿐해진다. 서울 화계사, 보림선원, 수선회를 비롯해 대구 동화사 시민선원, 부산 해운정사, 대전 학림사 오등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 선우회와 같이 직장인들이 매주 일요일 108배를 기반으로 참선 정진을 함께 하는 모임도 활성화 되고 있다.

올 겨울, 춥다고 방구석에만 있지말고, 가까운 선원, 혹은 다른 수행자들과 참선삼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재가자 안거 시행하는 곳

서울	조계사 선림원	(02)768-8600	전주	전북불교회관	(063)277-3497
	봉은사 시민선원	(02)3218-4800	대구	동화사 시민선방	(053)980-7900
	국제선센터 금차선원	(02)2650-2200		한국불교대관음사	(053)474-8228
	참불선원	(02)1577-3696	부산	홍법사	(051)508-0345
	안국선원	(02)732-0772		혜원정사	(051)866-7771
	공생선원	(02)900-2448		안국선원	(051)583-0993
	수선회	(02)732-5960		영주암	(051)754-2210
	천태종 관문사	(02)3460-5300		해광사	(051)721-3167
남양주	봉선사 선우회	(031)529-1950		미타선원	(051)253-8687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	(032)872-6061		원오사	(051)542-7949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042)825-0515		대연정사	(051)625-3886
충주	석종사 석종선원	(043)854-4505		관음사	(051)294-9300
단양	천태종 구인사	(043)423-7100		동명대 세계선센터	(051)629-3582
장성	백양사 시민선원	(061)392-7502	제주	남국선원	(064)773-2278
곡성	성륜사 금강선원	(061)363-7001		원명선원	(064)775-3322

■직장인 주말 참선 할 수 있는 곳

서울	길상사 길상선원	둘째주 토	(02)3672-5945
	법련사 불일선원	넷째주 토	(02)733-5322
	화계사 시민선원	매주 토	(02)902-2663
대구	동화사 시민선원	매주 토	(053)982-0223
산청	보림사 보림선원	매주 토	(055)914-6187
부산	범어사 시민선원	매주 토	(051)508-3122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선어록 강좌 열리는 곳

서울	불교인재원(조사어록)	매주 월	(02)735-2428
	공생선원(성철 스님 100일법문)	매주 화,목	(02)900-2448
부산	천태종 광명사(오도기략)	매주 토	(051)581-1331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 × 1,000(세로) × 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 <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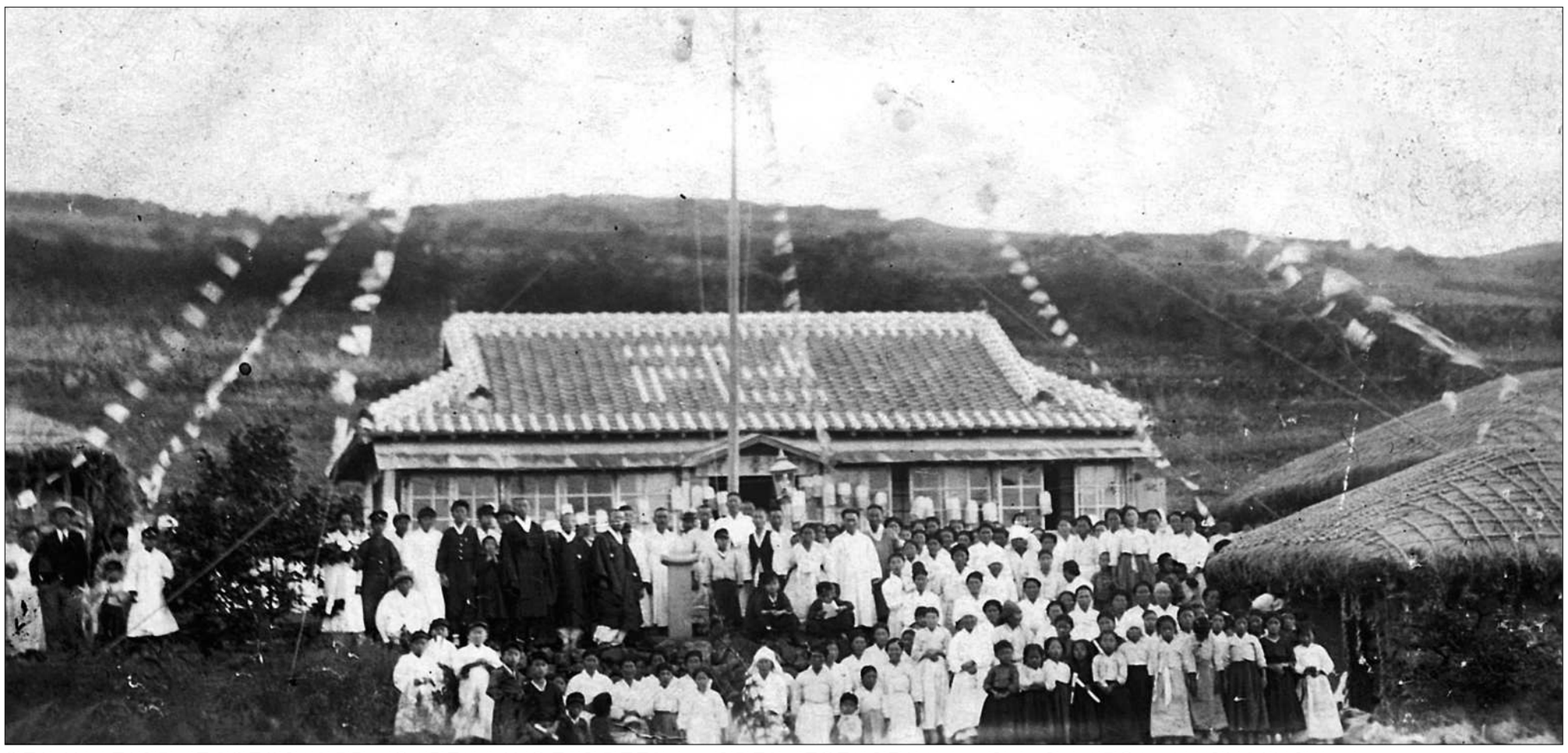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 처명)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3〉 하원동 법화사

계몽운동 헌신… 4.3 가담 혐의로 행방불명



원문상 스님이 주석했던 제주 하원동 법화사의 전경. 마을 사람들에게 스님은 투철한 민족주의자로 지역민들의 계몽운동에 앞장선 이라고 기억되고 있다. 사진은 1937년 부처님오신날 행사 모습.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중문중 설립자 원문상 스님, 제주불교 혁신 주도해

'좌파극렬자' 분류…예비검속에 체포 · 사망 추정

마을 주민들 "민족주의자이자 계몽운동 의인" 기억

해방공간의 지식승이자 교육자로 잘 알려진 만허 원문상(滿虛 文常, 1908~1950 · 오른쪽 사진) 스님은 교육계와 불교계 원로인 조명철(85) 前 혜향문학회 회장의 평생 불심의 뿌리가 돼준 큰 스승이다.

스님은 1945년 12월 관음사 제주읍내 포교당인 대각사서 열린 '조선불교혁신 제주불교승려대회'의 부의장을 맡아 불교혁신을 주도했다. 1947년 고향인 하원으로 돌아온 스님은 중문중학원에서 역사와 한문, 동양사 등을 가르치며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1948년 당시 중문중학원 1학년으로 입학한 조명철 회장과 사제지간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14살 무렵 청소년 시기에 조 회장의 눈에 비친 원문상 스님은 스님이 아닌 교사였다. 스님은 왜소했지만 박식함에 막힘없는 언변과 열정의 에너지까지 갖춘 분으로 기억했다.

"원문상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스승으로 유명했어요. 우리에겐 역사를 가르치셨는데 책을 보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꿰뚫고 계신 분이었죠.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을 하셨지요. 늘 역사가 아닌 인생의 이야기든, 종교 이야기든 늘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키에 똘똘했던 조 회장을 스님은 애제자로 아끼셨던 모양이다. 하루는 오전 수업을 마친 후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법화사로 향했다.

"그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던 것 같아요. 법화사에 도착하니, 대웅전 중심에 긴 기둥을 세워놓고 운동회할 때 다양한 국기를 걸어놓듯 그렇게 많은 국기가 걸려있고, 주변에는 등도 많았지요. 당시 법화사에는 서귀포에서 안덕면 사람들까지 신도였으니까 사람들로 야단법석이었어요. 선생님이 요사채에서 나오시더니 가사장삼을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스님이셨구나'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문중학교는 번듯한 학교 건물이 아니라 중문 향사를 빌려 중학원을 개원했다. 중학원은 원문상 스님과 이경주 선생 중심으로 건립됐고, 학교장은 이성주 선생이었다. 하지만 1948년 4 · 3 발발 후 이성주 선생이 육지로 피신하면서 이경주 선생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4 · 3의 발발로 무장대에 의해 향사가 불타면서 중문 마을 창고에서 2학년이, 중문 예배당에선 1학년이 수업을 겨우 지속하는 등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시 중문에 주둔했던 서봉오 중위가 남부일 소령에게 중문중학교를 새롭게 신축해 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주민들과 군인들이 삼나무를 베어서 군인 트럭으로 운반을 하면 학생들이 밤새 나무를 지키곤 했죠. 그 당시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선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중문중학원은 처음에는 중학원 인가 학교였으나 제주 4 · 3 서귀포지역 진압군 사령관인 전부일 소령의 배려로 인근 삼나무를 벌목해서 다시 세워졌다. 그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소령의 가운데 '부'자와 중문의 '문'자를 따서 '부문중학교'로 개칭했다. 부문중학교는 1950년 4월 정부 인가 정식학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교육자인 원문상 스님과 이경주 선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예비검속으로 행방불명됐다. 스님은 당시 승단에서도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당시 지식인층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 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물들지 않은 지식인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문중학교에는 서북청년단 출신 인물이 교감으로 부임했고, 설립자인 원문상 스님과 이경주 선생과의 마찰은 뻔했다. 1950년 8월 원문상 스님과 이경주 선생은 4 · 3 가담혐의가 덧씌워져 군경에 체포됐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1950년 7월 서귀포경찰서 '공무원 구속자 명부'에 의하면 원문상 스님은 '좌익사상 극렬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경주 선생의 경우 '망원경을 소지해서 산사람하고 연락했다'는 기록이 돼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투철한 민족주의자로 지역민들의 계몽운동에 앞장선 의로운 분이라고 기억되고 있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법화사

법화사, 소개령 後 토벌대에 전소

한국전쟁 당시 육군 숙영지 전락

법화사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말사다.

제주4.3사건 시기 법화사는 소개령으로 법당과 요사채를 비우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원 마을 안으로 들어가 초가로 절을 짓고 살았다. 장한택 스님은 하원 마을 성안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한글과 주산을 가르치는 문맹퇴치운동을 했다. 아이들은 법당에서 연극 연습을 해 마을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1948년 10월 소개령 이후 토벌대에 의해 법화사는 전소됐고 1950년 3월 장한택 스님이 허술하게나마 복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법화사는 장한택 스님이 드나들며 관리했다.

1952년 한국전쟁 시기 법화사는 육군 제3숙영지로 사용됐다. 대웅전을 숙영지 본부로 사용했고 법화사 경내 논을 메꾸어 연병장으로 사용했다. 경내에 사병 막사가 지어졌고 법화사 위 지경은 군인들의 사격 훈련 등 훈련 장소로 활용됐다.

당시 숙영지 소장의 어머니가 불자라서 대웅전을 군인들이 쓰는 것을 보고, 새 대웅전을 지어놔야 한다고 해 소장이 장한택 스님을 찾아 새 대웅전 자리를 물색하게 했다. 장한택 스님과 신도회장 등이 모여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 기반 공사를 군인들과 함께 시작했다. 기반 공사를 하던 중 소장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부임하면서 재건은 지지부진해졌다.

후일 장한택 스님과 신도들이 법당과 요사를 다시 재건했다. 원래 법당과 요사채는 현재 경내 법화수 지경에 있었다. 새로 재건된 법당은 현 대웅전 자리이다. 그 법당을 허물고 1987년 다시 현재의 대웅전을 지었다. 현재 구품연지는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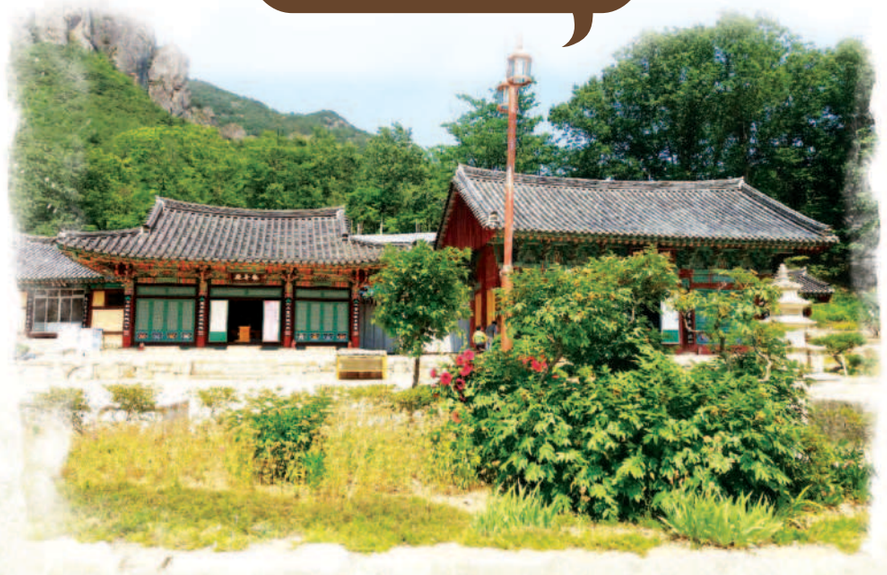
1951년 1.4후퇴 이후 전쟁이 격화되며 대구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는 1951년 1월 22일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 설치됐다.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하루에 500명 정도 입소하던 군인들이 8만 명 정도가 입소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제1훈련소에서만 1951년부터 1956년 1월까지 50만여 명의 신병이 배출됐다. 이 시기인 1952년 2월 13일에 법화사에 제3숙영지가 설치된 것이다. 숙영지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정리됐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미세한 인과 고리

⑨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화장품마다 35만개 이상이 있다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해양 생물이 섭취해 생태계에 돌게 된다.

"엄마~ 이제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세수를 하는 나를 보고 초등학생 아들이 말했다. 평소에 자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니 화장을 하지 말라"고 말해 왔던 아들이었지만 이번엔 왜 그러나 싶어 되물었다. "왜?" "화장품에도 납이 들었대요." 아마도 어디선가 독성 물질에 대해 배우면서 들은 말인 모양이었다. 이런 말은 해양 생물 성분을 활용해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인 남편에게 익히 들어온 말이다. 심지어 화장품에 독이 들었다는 말과 함께 화장을 하는 일이 얼굴에 독을 바르는 일이라는 요지의 책도 남편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다. 다행히 나는 남편의 연구결과물들인 천연화장품이나 에코라는 이름이 붙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 얼굴에 독을 바르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인공적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들이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 화장품을 사거나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고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림 한 장을 접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다. 'Face to fish'라는 캠페인을 알리는 그림에는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람과 물고기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처음 이 그림을 보면서는 '왜 화장품 때문에 바다가 아프지?' '화장품과 플라스틱 바다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화장품에 독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어 그 독을 내 얼굴에 바르는 일은 피해왔으면서도 그 독이 바다에 가 닿을 수 있다거나,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과 마주한 물고기 그림이 알려준 내용은 내 사고의 틀을 단박에 깨 주었다. 화장품에 들어 있는 여러 성분은 사람뿐 아니라 환경과 바다에 주는 영향도 심각했다. 수많은 성분들 중 '스크럽제'라는 미세 알갱이의 영향은 무서울 정도였다. 스크럽제는 세안제, 치약 등에 쓰이는 미세한 알갱이로 플라스틱 성분이 대부분이다. 미세하다는 수식어에 걸맞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10분의 1 정도 크기인 미세 알갱이들은 화장품 한 개에 삼십오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이 양은 1리터 페트병 28개를 잘라 낸 분량이 된다. 얼굴 모공 깊숙한 곳의 오염물을 잘 씻어 내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고 기능성을 강조하지만 이 알갱이들은 간혹 눈썹에 남아 안구에 들어가 안구 충혈, 안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기도 한다. 그리고 노폐물이나 각질 제거로 목적으로 문지르다 보니 민감한 피부의 경우 피부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워낙 미세하다 보니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침전했다가 하수 슬러지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에 섞이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의 원인도 된다. 또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독성을 흡수한 채로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이로써 사람의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어떻게 물고기와 대면하는지 명백해지고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라는 말은 성립되고도 남게 되는 것이다. 화장품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도 독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화장을 많이 하지 않고 세안제도 쓰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80여 가지의 유익한 미생물인 em이 함유된 비누로 세수, 목욕, 머리감기까지 해결하고 있다. 여행을 갈 때도 em 비누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혹여 세안제를 살 일이 있어도 꼭 성분을 확인한다. 그러나 나같이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평생 동안 쓰는 화장품의 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썬크림 역시 바다의 산호초에겐 독과 같다.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게다가 요즘엔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까지 화장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다. 그러므로 오늘도 화장을 지우는 세안제, 치약까지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8조 개 정도, 즉 테니스장 300개 정도를 뒤덮을 수 있는 알갱이가 쏟아져 하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 바다를 떠다니던 미세 알갱이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결국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간 그 알갱이들은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있는 인간이 해수산물을 섭취할 때, 독성이 100배 정도 강해져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다시 우리에게 오는지도 모른 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한개당 35만개
독성 흡수한 채로 생물 먹이로
진정한 美는 환경지킴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감할 수 없는 것이라면 2015년 여름, 코스타리카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학자들에게 의해 촬영된 동영상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바다를 아프게 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준다. 콧구멍에 이물질이 끼어 호흡 곤란을 겪는 바다거북을 발견한 이들이 거북의 코에서 빼낸 것은 길고 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였다. 빨대를 뽑는 내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8분짜리 영상을 나는 차마 끝까지 보지 못했다. 그만큼 피 흘리는 바다거북의 모습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아프게 하는지, 바다 생명들은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지 직면하는 일은 힘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할 때는 지극히 무감하다. 매일 아침, 미세 알갱이가 함유된 치약으로 이를 닦고, 빨대로 커피를 여유롭게 빨아 마시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무심한 행위 끝에 버려지는 것들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우리는 내가 버린 빨대가 어디로 흘러갈지, 또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치약에 포함되었던 미세 알갱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인과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견지해야 하는 삶의 철학이고 최소한의 실천 덕목인 것이다. 제대로 알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스스로 시도해야만 한다. 비록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말이다. 커피를 살 때, "빨대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잊지 말고 적어도 나는 바다거북의 코를 찌르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바닷새 100만 마리와 수많은 바다거북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우리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세계 최악이라고 걱정들이 많다. 환경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3년 전부터 스크럽제 화장품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40년 전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스크럽제 사용 금지 법안도 없고 전 성분 표시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타르색소, 미네랄오일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20가지 성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성분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는 게 좋겠다. 또한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플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포함했다는 뜻이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천연 스크럽제를 만들 수 있음에도 기업이 인공 성분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량생산과 이윤 때문이다. 과대광고로 포장된 인공 성분의 화장품을 거부하고 천연 화장품을 선택하면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천연 성분 화장품을 찾아 사용하고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을 응원하는 것은 진한 화장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내면의 아름다운 품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품이 '에코'라는 이름을 앞에 달고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STOP THE WATER WHILE USING ME(나를 사용하는 동안 물을 멈춰주세요)' 이 긴 이름이 화장품의 상품명이다. 이처럼 이름 자체로 환경 캠페인을 겸하고 있는 제품부터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화장품도 있다. '립스틱을 부탁해'라는 시리즈는 7종의 멸종 위기 동물을 모티브로 립스틱을 디자인했다. 게다가 이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탄생시키는 가치가 동물과 자연,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는 공생의 뜻을 실현하는 화장품의 탄생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또한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모아 오면 신제품을 주는 공병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회사도 있다. 공병이 재활용되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고, 그것은 곧 나무를 심는 효과를 가져 온다. 나를 꾸미는 일이 지구를 추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 않도록 화장품의 선택과 사용에서 신중해져야 한다.

우리 모두의 화장품 사용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서 멀리 가지 않길 바란다. 화장품을 바르는 짧은 시간, 거울 속에서 지구와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을 마주하며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진정한 화장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들은 물고기를 사랑한다. 물고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물고기를 좋아해 수시로 물고기를 그리고 클레이로 물고기를 만든다. 이런 아들이 엄마의 화장품이 물고기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오늘 아침 아들의 말은 달라졌을 것이다. "엄마~ 이제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화장품 때문에 물고기가 아파요. 물고기의 집인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라고. 화장하지 않아도 예쁘다는 아들의 달콤한 말이 아니더라도 물고기와 대면한 나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구를 아프게 하는 화장품 사용을 줄여 나가야겠다.



천미희 기획실장(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봉 행

재 단 법 인 대 한 불 교 일 붕 선 교 종

불기 2562년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및 종도 법계고시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혜월 원각
총무원장 : 경원
고시위원장 : 석성 교육원장 : 승원

품계품수자

경담,제법,대각,동청,도명,지명,령산,석담,해동,우담,지원
덕산,원공,혜성,붕원,석천,지안,무상,지흘,일현,지복,도행
덕운,대원,현담,일법,지명,성운,해암,동철,진명,법은,대원
백운심,혜각,선혜,겸도,현산,지모,도봉,성견,도영

구족계수계산림 입제일 : 불기 2562(2018)년 10월 29일
법 계 고 시 입제일 : 불기 2562(2018)년 10월 29일
법 계 고 시 회향일 : 불기 2562(2018)년 10월 30일
법 계 고 시 장 소 : 인천호불사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

코보대사가 고등어 든 이유는?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⑩ 독특한 설화 가진 사바다이시

새벽녘 더위와 습기에 눈을 뜬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쯤 되었다. 그냥 더 잘까 하다가 어차피 6시에 눈 뜨고 준비할 걸 생각하니 그냥 일어나기로 한다.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장정 아홉이 다닥다닥 누워 잠을 자는 게 생각보다 장관이다.

침낭을 말아 정리하려니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다른 순례자가 눈을 떴다. 그도 시계를 보더니 곧 일어나선 이부자리를 정리한다. 아침 6시, 오늘도 걷기 시작이다.

밤중의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는 조용한 아침 길은 각별하다. 귀에 들리는 것은 지팡이가 길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와 자박이는 발걸음 소리.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소리에 집중하며 한참을 걷는다. 어제 몸을 녹였던 히와사역을 지나쳐 55번 국도로 올라선다. 이제 다음 사찰까지는 약 74km. 2, 3일을 꼬박 걸어야 한다.

갑자기 사찰간의 거리가 확 멀어지니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기도 한다. 23번까지 순례하는 것으로 발심의 도쿠시마가 끝난다는 것은 좋은 구실이 된다. 실제 히와사역 앞에 고속버스도 서기에 오사카나 고베 등으로 갈 수 있다.

잠시 멈춰서 쭉 뻗은 국도를 바라본다. 어느 순례자가 기억났다. 83번 절에서 만난 그는 23번에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단다. 그러다 23번 야쿠오지에서 쭉 뻗은 길을 보는 순간 '여기까지 왔는 걸' 이라며 24번을 향해 걸었다고 한다.

그렇게 3일을 걸어 24번에 도착하자, 그는 걸어온 게 아까워서 고치시(高知市)까지 걷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고치시를 훌쩍 넘어섰다. 그렇게 '조금만 더, 다음 도시까지만' 하다가 80번 대에 들어와선 결원(結願)이 코앞이라며 "대사가 길에 마술을 걸어둔 게 분명하다"며 웃어보였다.

오늘의 목표는 순례길에서 조금 옆으로 빠져서 있는 사찰 죠만지(城滿寺). 야쿠오지에 30km 정도 떨어진 사찰이다. 시코쿠 88개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찰이지만 항상 들리고 있다.

두 번째 순례 당시 하루 묵었던 젠콘야도의 사장이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지도에서 이곳을 짚어주며 "여기 주지 스님이 한국을 좋아한다. 매달 한국을 간다"며 순례자를 간혹 재워주니 가보라고 알려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처음엔 그저 한류를 좋아하는 스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갔더니 그야말로 학승이었다. 주지인 코야 스님은 수행은 물론, 범어와 남인도 방언인 타밀어, 한국어까지 마스터했다. 한국과 인연이 돼 해인사 승가대학에 출강을 나간 적도 있다. 젠콘야도 사장의 '스님은 매달 한국에 간다' 는 말은 강의를 위해 한국을 왕래했음을 짐작케 했다.

어제 빗속에 경황이 없어 사찰에 간다는 언질을 못 드렸으니, 오늘 점심에는 전화를 드려야 한다. 오래간만에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걸음에 힘이 들어간다.

23번에서 24번으로 가는 길은 바닷가를 옆에 끼고 이어지는 단조로운 풍경이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야 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지만, 이내 갈매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은 바다 풍경이 지루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쉴만한 그늘이나 벤치 같은 것도 드물어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쉬기도 한다.

그래도 이곳의 바닷가는 일본에서도 해양스포츠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간간히 서핑이나 다이빙을 하는 이들이 보인다. 한 번은 더위에 지쳐 바다 근처로 걸으면 좀 시원할까 싶어서 해수욕장으로 걷는 길을 택해 걸은 적 있다. 그런데 오히려 모래의 반사열이 그대로 올라와 얼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온 후론, 아무리 더워도 해수욕장 근처로는 가지 않았다. 그래도 텐트를 가지고 다니는 순례자들은 종종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보낸다고 한다.

한 시간 걷고 5분가량 쉬는 식으로 5시간 정도 걸었더니 슬슬 배가 고파온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꾸역꾸역 걸었더니 배가 고프다 못해 졸음이 몰려왔다. 지도를 펴고 대충 거리를 보니 20km 남짓 걸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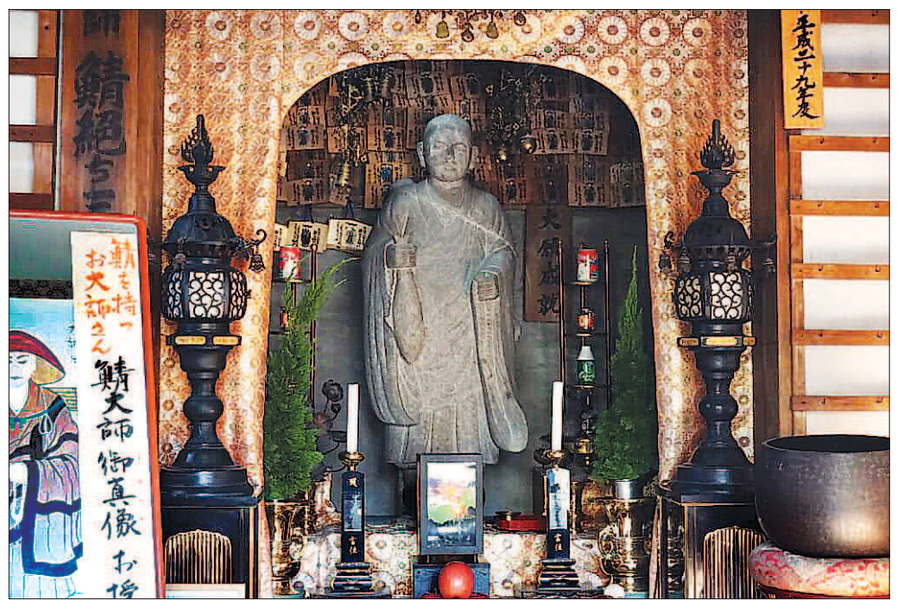
일단 뭐라도 먹고 좀 쉬어야 할듯 해 순례길 옆에 있는 사찰 사바다이시(鯖大師)로 들어섰다. 사바다이시는 일본어로 '고등어 대사' 라는 뜻이다. 시코쿠에서 '대사' 라고 하면 보통 '코보대사' 를 말하는 것인데 '고등어 대사' 라고 하니 또 재미있다.

사찰 전설에 따르면 옛날 코보대사가 수행을 하다가 간고등어를 마차에 싣고 가는 마부에게 고등어를 한 마리 달라고 했다. 마부는 그 청을 거절하고 비린 생선을 먹는 땡중이라며 욕을 하며 떠나갔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말이 갑자기 아파하며 움직이질 못했다.

마부는 자신이 욕을 한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님을 알고는 고등어를 가져가 공양 올리며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대사는 진언으로 정화한 물을 말에게 먹였고, 말은 곧 멀쩡하게 움직였다. 또한 받은 고등어를 바다에 넣자 살아서 헤엄쳐갔다. 이를 본 마부는 발심하여 출가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마음 속에 발원을 하고 3년간 고등어를 먹지 않으며 정진한 뒤에 이곳에 와서 회향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바다이시의 입구. 일본에서 '고등어 대사' 를 본존으로 모시는 곳은 이곳뿐이다.



고등어를 손에 들고 있는 코보대사상. 고등어 공양 관련 연기 설화가 눈길을 끈다.

23~24번 사찰 거리는 약 74km
3일을 걸어야… 순례 포기 구간

순례 사이 들리는 '사바다이시'
고등어 공양 관련 설화 '눈길'
프랑스 친구의 부적 선물에 힘나

전설을 증명하듯, 사찰 한 켠에 고등어 석상이 놓여있고, 사람들이 소원을 쓴 나무판이 고등어 주위에 가득 놓여 있었다. 또 사찰의 대사상도 석장과 발우가 아닌, 고등어와 발우를 들고 계신 재미난 모습으로 모셔져 있다.

일단 사찰 앞 휴게소에서 배낭을 벗고 미숫가루를 타먹는다. 원래라면 반죽을 내고, 생강편이나 여타 부식을 챙겨 먹겠지만 그냥 멀겋게 타서 훌훌 들이킨다. 요기를 하고 잠시 쉬려니 졸음이 몰려온다. 아무래도 어제 잠자리가 좋지 못했나 보다. 어차피 이곳 사바다이시에서 오늘 목표인 죠만지까지는 10km 남짓. 코야 스님에게 전화를 하고 한숨 자고 출발하기로 결심한다.

코야 스님은 "또 시코쿠에 왔냐"며 놀라면서도, 사찰 근처로 오면 마중 나갈테니 전화하라고 했다. 전화를 마치곤 배낭을 끌어안았다. 간혹 낮잠을 자다가 짐을 도둑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다. 배낭을 끌어안고 바람소리에 스르륵 잠에 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인기척에 눈을 떴다.

"어! 진짜 박상이다!"

내 이름이 들려 고개를 들어 보니 며칠간 같이 다닌 일본인, 프랑스인 콤비가 앞에 서있다.

"어! 두 사람, 야쿠오지에서 끝낸다면서요?"

"하하, 그게 그냥 좀 더 걷기로 했어요. 프랑스 친구는 오늘 갈 수 있는데까지 걷고 도쿠시마로 돌아갈 거래요."

"그렇게 좀 더, 좀 더 하다가 88번까지 간다구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웃음)"

역시 이 길은 코보대사가 무슨 신통을 걸어두셨나보다.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나니 마음이 든든하다. 두 사람도 점심을 먹을 겸 사바다이시로 왔다고 한다. 둘이 식사를 마치길 기다려 함께 참배를 하기로 했다.

사바다이시의 본당 옆으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동굴식 법당이 있었다. 들어가보니 생각보다 깊이 이어진다. 복도에는 시코쿠 88개소의 본존들이 순서에 따라 작게 모셔져있다. 설명을 읽어보니 본존 앞에 높인 연꽃모양 발받침아래 각 절의 흙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오스나후미(お砂踏み)라고 하는 미니 시코쿠 순례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각 사찰의 흙을 조금 가져와 그 위를 밟으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발받침을 밟으니 '또각' 하고 소리가 난다. 확실히 밟았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 알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

참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프랑스 친구가 호신부 판매대에서 호신부를 고르고 있었다.

"박! 이거 고르는 것 좀 도와줘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뻐서 좀 살까 해요."

"이건 호신부에요, 부처님과 대사님께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은 거에요."

"아! 그럼 더 사가야지! 친구들 줄 거에요."

한문으로 쓰인 호신부의 공능을 하나하나 영어로 옮겨주니 학업부적을 친구 주겠다며 하나 사곤, 짚신모양의 교통안전 부적을 3개 산다. 느긋하게 절을 참배하고 쉬다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여기서 죠만지까지는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 마침 도쿠시마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차역이 죠만지 근처라 모두 역까지 같이 걷기로 한다.

태양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뜨거운 열기가 남은 길을 걸으며 앞으로의 길을 가늠해 본다. 오늘은 죠만지, 내일은 역시 30km 정도 떨어진 절, 그리고 24번 호츠미사키지(最御岬寺), 수행의 토사(土佐)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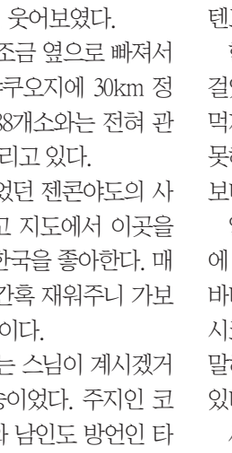
어느새 카이후(海部)역에 도착했다. 도쿠시마로 돌아가는 기차 플랫폼에는 귀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난데없이 등장한 3명의 순례자에 시선이 쏠린다. 프랑스 친구는 오늘 도쿠시마에서 자고 내일 오사카로 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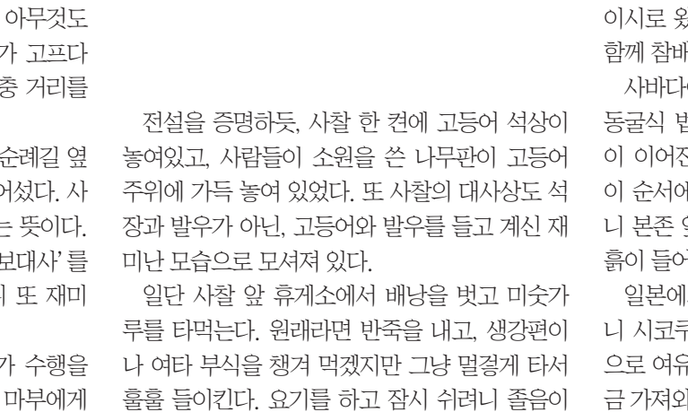
40분정도 기다리자 기차가 들어왔다. 프랑스 친구는 아까 사둔 교통안전 호신부를 꺼내 나와 일본인 친구에게 하나씩 주었다.

"친구들! 무사히 순례해요. 88번에서 연락주고! 프랑스에 오면 연락해요!"

갑작스런 선물에 놀라움과 감동이 몰려든다. 친구에게 준다는 게 우릴 가리킨 말이었던 것이다. 꼭 연락하겠노라 다짐하고 호신부를 배낭에 달았다. 기차가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친구를 배웅하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

〈자유기고가〉

전국 제일의 생 지장도량 철원 심 원 사
극락보전 황금위패 봉안 안내
생 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는 선망 조상님들의 영구위패를 극락보전의 장엄한 영단의 황금위패에 모시어 영가께서 더 이상 업보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바른 길에 들어 극락세계에 왕생토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황금위패 봉안불사에 정성스러운 동참바라며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어 무량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철원 심 원 사
종무소 | 033)455-3468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1길 5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에 문의바랍니다.
황금위패에 모셔진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월 지장재일마다
합동 제사를 모십니다.
수자령 · 대명수 합동 49재
수자령(낙태영가 및 유산영가)과
대명수(자살자, 객사자, 변사자 등)와 같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잘 보내드려서 자손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입 재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회 향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차 량 (토) 오후 5시 / (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출발
개인 49재 막재천도재 매일 상식을 올려 모십니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 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보시·공생의 확대 '공공복지', 행복 첩경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㉒ 경전 속 불교 이상국가는?



그림 · 박구원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일까?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했다. 고통의 해결은 과연 행복일까? 〈숫타니파타〉에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고 설해져 있다. 행복하려면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불교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지만 수행을 하는 이유는 피상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해도 무방하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무관심한 나라다. 유엔의 행복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50위 정도를 맴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도가 낮은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요즘 자주하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다. 헬조선에서 국민이 행복할 리가 없다.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유엔의 행복평가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같은 나라는 행복도 순위가 매우 낮다. 행복평가 방법에 따라 이들 국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유엔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에 의하면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결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예전 인도 빨래공과의 인터뷰가 방영되었다. 인도에서는 하루 종일 빨래만을 하는 사람을 빨래공이라고 한다. 긴 노동시간과 독한 세탁제를 사용하기에 끔찍한 직업이라 생각되는데 뜻밖에도 자신은 무척 행복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인터뷰할 때 독한 세탁제로 젖은 몸을 솔로 닦고 있었다. 그는 싱글 벙글하면서 자기가 행복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했다. 기자가 이 일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느냐고 하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기자가 방금 행복하다고 했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한다.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방법은 행복측정의 적정한 방법이 아니다.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국민의 행복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은 다른 방법으로 행복도를 측정한다. 유엔은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을 10으로 놓고 최악의 삶을 0으로 놓을 때 당신 삶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렇게 물으면 인도의 빨래공은 2나 3으로 답하지 않을까? 그러나 마이크를 대고 얼마나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엉뚱하게도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다.

유엔의 행복도 측정 방식에 의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부탄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 부탄은 2016년 평가에서 84위를 차지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뒤떨어진다. 유엔의 측정 방법은 '최고의 삶' 이면 최고로 행복하다고 가정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다. 인도 빨래공의 사례처럼 부탄 사람은 자신의 삶이 최고의 삶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마 마이크를 대고 부탄 사람에게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부탄은 독재국가이며 매우 폐쇄적인 국가이다. 독재국가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탄이 행복한 국가로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잔재주를 부리고 온 세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른다. 부탄을 방문한 사람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 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사람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엔의 행복평가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다. 부자나라의 국민이 더 행복하다. 다만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처럼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국가가 있고 남미 국가처럼 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유교국가, 권위주의 국가를 요인으로 거론한다. 황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남미는 혹시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사회가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유엔의 행복평가에서 우리는 돈에 관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체로 돈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엄연한 사실, 둘째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사실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다만 돈 밖에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질 길이 없으니 돈에 의해 행복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거다.

상위 10위권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란드이다. 이들 국가는 서로 순위만을 바꿀 뿐 다른 나라가 좀처럼 10위권에 진입할 여지는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행복에 관한 한 10위권 국가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행복한 10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복지국가라는 점이다. 그 어떤 국가도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불교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까? 부처님은 어떤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경전에서는 전륜성왕의 도리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중아함경〉은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고 설한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다. 전륜성왕은 복지를 베풀어

소득수준과 행복은 상관있어
복지수준 높으면 행복 증대
조합 등 경제공동체 구성 필요

야 한다는 것을 견노념왕이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아함경〉은 "나라에 외로운 이와 노인이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부디 거절하지 말라."고 설한다. 또한 〈장아함경〉에는 부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왕과 대신의 대화에서 왕의 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머물 곳을 마련해서 침구까지 마련해주는 총체적인 복지국가가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모형이다.

〈증일아함경〉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문과 바라문을 공양하고 외로운 노인을 모셔 기르며 빈궁한 이에게 보시하였다. 네 성문과 성 복판에 창고를 만들어 두고 금, 은, 잡보, 코끼리, 말, 수레와 의복, 침구, 의약, 향, 꽃, 음식을 쌓고,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 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라고 설한다. 고독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선해주라는 구절은 우리를 놀랍게 한다. 부처님은 의식주, 즉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원을 넘는 복지국가를 설하신 것이다. 인간의 외로움까지도 해결해주고 가정까지 마련해주는 삶의 질 차원의 복지라고 생각된다. 복지의 천국이라는 북유럽에서도 이런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륜성왕의 사례로 간주되는 아쇼카 왕은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였지만 경전에서 주장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쳤다. 과연 오늘날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경전에 이러한 구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자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경전에 나타난 구절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개인차원에서 보시를 통해 가난을 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직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불자가 개인적으로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의 생각에 심각하게 반대하는 견해를 갖는 것이 된다. 경전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교복지국가의 이상을 펴고 있기 때문에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불교복지국가의 이상을 외면할 수 없다. 대승불교의 중생구제 사상도 알고 보면 불교복지국가의 연장이다.

복지국가망국론이 워낙 수 십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에서 강조되었기에 우리는 불교가 복지를 내세운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복지국가망국론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소득과 국민행복도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경제성장율, 실업율 등 이들 국가의 경제성적표가 훨씬 더 좋았다. 적어도 복지국가 망국론은 틀린 말이니 불교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현명하게 추진하면 된다.

최근에 그리스가 망한 것은 복지국가를 추구한 때문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스 공무원 복지가 방만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을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가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그리스가 부패하여 망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옛말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처지를 비관하며 '집도 없고 절도 없고…'라는 표현을 썼다. 과거에는 절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 주었다. 집이 가난하면 아이를 절에 맡기기도 했다. 사찰은 가난한 사람에게 의지처였다. 불교경제공동체는 역사상 많은 사례들이 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사찰이 경제공동체의 역할을 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무진장(無盡藏)같은 금융기관은 대표적인 불교경제공동체였다. 사찰은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승려 이외에 일반 농민과 노비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수공업에 의한 생산활동도 활발했으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사찰의 경제력이 너무 막강하여 중국과 한국에서는 왕권을 위협할 수준까지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교를 탄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자본주의가 사찰에 의해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학문적 관점까지 있다. 박규상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탄생된 일본상업자본은 진종에 의하였으며 일본의 진종은 단순히 종교단체임을 뛰어넘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불교경제공동체는 마을을 단위로 구축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 같은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모임 형태로 성립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는 물론이고, 중국, 한국, 일본에서 사찰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처님도 금융업을 장려할 정도로 불교에서 금융은 바람직한 경제기능으로 간주되었고 사찰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 논란은 없었다. 과거의 금융기관 역할이 반드시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건을 대여해주고 전당포의 역할도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었으며 한 때는 사찰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불교경제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불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정보만 정직하게 교환해도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가 된다. 어느 기업의 제품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정보, 음식점에 대한 정보, 각종 점포에 대한 정보, 수퍼마켓에 대한 정보, 은행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다.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매활동을 하면 불자끼리 불교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불교경제공동체는 바람직한 경제활동 모델을 제시하여 불교적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불자의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창 종 공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경조계종

(문화관광부허가 제2017-10호 법인등록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스님

(사)대한불교대경조계종은 불조인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지하고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자타 각행원만한 교리를 봉체하고 대승불교 사상과 중도관을 용으로 진언밀교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호국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광도중생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제방의 큰 스님들과 법사님 및 포교사를 모십니다.

승정원장 **일월** 감찰원장 **혜성** 법계고시원장 **정란** 교육원장 **해룡**
호법원장 **성담** 포교원장 **정허** 연수원장 **도국** 비구니원장 **용정**

❑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 및 납골당 사업 · 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 · 교정사업 · 다문화 전통문화사업

입 / 종 / 안 / 내

◆ 입종 구비서류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 안팎 사진 1매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총본사 / 총무원 : 천룡사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1길 27-15호 (송천동) ✪ 총무원 전화 054)823-6777 직통 010-4053-2722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기 맞춘 부처님 대기설법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㊶ 원각경 4

〈원각경〉에서는 열두 보살이 부처님과 문답(問答)을 통해 원각수행의 방편점차(方便漸次)를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 또한 서품장(序品章)과 열두 보살장(章)을 합해 총 13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원각경의 큰 줄거리를 보면 먼저 경(經)이 설해진 계기를 밝힌 서품장에 이어 문수사리보살장은 신해문(信解門)에 의거 '대(大)'를 밝힌 것이고, 보현보살장으로부터 정제업장보살장까지 8장은 자리문(自利門)에 의거 '방(方)'을 밝힌 것이며, 보각보살장은 이타문(利他門)에 의거 '광(廣)'을 밝힌 것이고, 원각보살장은 증화구경문(證化究竟)에 의거 '원(圓)'을 밝힌 것이며, 이들 모두는 또한 '각(覺)'을 밝힌 것이어서 경의 내용이 이름에 그대로 요약돼 있다.

보현보살장과 보안보살장은 상근기, 금강장보살장과 정제업장보살장까지의 6장은 중근기 보각보살장과 원각보살장은 하근기를 위한 내용으로 각각 상세한 수행법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장인 현선수보살장은 유통분(流通分)에 해당한다.

처음으로 나오는 문수보살은 보살 가운데 으뜸으로서 특히 지혜가 제일 뛰어나며 부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중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법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보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로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 수행자 신분을 나타낸다.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고자 더불어 수행하는 수많은 대중이 모두 보살이기에 이들 중에 이미 성불한 경지에서 중생으로 화현해 대중교화를 하는 이들이 있다. 문수보살도 이중 하나다.

문수보살은 스스로의 법력과 원력에 의해 중생세계에 자유자재로 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을 설하는 회상의 십만여 대중이 모두 보살들이라고 한다. 이는 문수보살이 후세 대중을 위해 부처님과 함께 펼친 아름다운 진리의 향연임을 뜻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출생해 중생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본다. 화신(化身)이자 죽음과 오고 감이 없는 법신(法身), 보신(報身)으로서 삼신불(三身佛)로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출현은 본래 성불한 부처님이 중생 근기에 맞게 보여준 교화방편인 것이다. 원각에서의 부처님은 이러한 초월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원각경에서 첫 번째 질문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 수행하셨던 올바른 방법과, 이어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사견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친절하고 간결하다. 위없는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은 '원각'이라고 이름붙인 큰 법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진리(진여)와 깨달음(보리), 평화(열반)와 완성(바라밀)의 법을 내어 보살을 가르치신다.

모든 부처님은 처음 수행하려 할 때, 원만하고 청정한 깨침의 모습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無明) 곧 무지(無知)를 타파하고 성불하신다고 한다.

원만하고 청정한 깨침의 모습은 허공과 같은 모습이다. 곧 '원각'이 부처님 수행의 처음과 끝인 것이다.

무명을 타파하여 원각을 이루고 보면, 생사윤회조차 허공의 꽃과 같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무명의 본질과 속성을 바로 보아 청정한 마음을 내고, 말세의 중생들도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어리석은 사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보게 되고 알게 되니 업보 업장이 사라졌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㊵ 전생의 원인 결과를 알게 되는 수행여정

부처님께 부지런히 바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동시에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매달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맺은 업보의 해탈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나는 무슨 인연을 맺었기에 그렇게 불쌍하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전생에 맺은 인연은 과연 무엇인가? 어머니를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진 어느 날, 검은 고양이를 꿈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어째서 검은 고양이가 보일까? 무슨 뜻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꿈은 아닐까?

그 검은 고양이 꿈의 뜻을 모른다는 생각도 정성껏 부처님께 바치면 그 뜻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당시 내 공부 정도로는 그 검은 고양이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 금강산에서 수도하시던 중 체험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일제에서 해방의 희망을 가지고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홀연히 한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했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어 있고, 평양은 아득한 북쪽 어디쯤에 매어 있는 장면이었다.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어 있을까?

그러나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해방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은 그 광경을 보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였다.

수행과 기도를 계속해 나가며 마음속에 탐심, 진심 그리고 치심이 점차 소멸되자 비로소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다.

1945년 8월,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기 때문이었고, 평양이 북쪽 어디엔가 매인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처럼 꿈속에 보이는 검은 고양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은, 해방이 되었는데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꿈에 본 검은 고양이를 생각하며 계속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자 검은 고양이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때에 선지식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전생에 절간에서 만난 인연으로, 실은 너의 상좌였다. 제자인 어머니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는데 어머니의 손버릇이 시원치 않아 어머니인 상좌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관찰하고 종종 의심하였던 것이다.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바로 고양이 마음이요, 그런 마음의 연습은 고양이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너는 전생에 어머니를 의심하고 간섭하나 연고로 사람 몸을 잃어버리고 고양이 몸을 받게 된 것이었다.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동반되었기에 고양이의 몸의 색깔이 검은 것이었다.

네가 금생에 어째서 너의 어머니 집에 태어난 줄 아느냐? 바로 전생에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허물을 꾸짖기 위해 그 집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머니의 말에 톡톡 쏘는 기질이 있었다."

"꿈속의 검은 고양이는 전생 어느 때인가 너와 너의 어머니가 맺은 업보의 모습인데, 그 업보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고인(古人)은 각지즉실(覺之卽失)이라 하였다. 즉 보게 되고 알게 되니 업보 업장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네가 어머니와 맺은 업보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 너의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생각, 즉 애정이 어느 정도 해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쌍한 그 마음을 좀 더 정성껏 잘 바친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까지 상세히 알게 돼 어머니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아지는 이 현상, 그것을 지혜라 한다."

확실히는 몰라도 어머니와 맺은 전생의 인연을 대충 알게 된 셈입니다.

지금은 매우 어설프게 아는 정도이지만, 더욱 철저하게 바치는 연습을 한다면 모든 것을 확실히 규명하고, 잘하면 나와 같은 못난이도 도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도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아이고, 아이고! '이뭣고?'

반산보적(盤山寶積)(마조도일의 제자) 선사가 걸음걸음 화두를 놓치지 않고 시장을 지나가다가 식육점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와서 말했다.

"깨끗한 고기 한 근만 주시오?"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 놓고 양손을 모으고 차수(叉手)하면서 말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깨끗함과 더러움, 옳고 그름, 선과 악등의 범부와 성인, 부처와 중생이라는 모든 차별상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광경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보적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후 어느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나게 됐는데, 요령을 흔들면서 소리 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건만, 알지 못하겠구나, 오늘의 이 영혼(靈魂)은 어디로 가는고?"라고 하니

뒤따르던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였다. 보적 선사가 이 곡(哭) 하는 소리에 확철히 깨닫고, 그 길로 마조 선사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

보적 선사의 전(前)과 후(後)의 깨달음이 각기 어떤 경지인가? 이는 향상일구(向上一句)의 기틀을 갖춰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향상일로천성불전(向上一路千聖不傳) 학자노형원착영(學者勞形如猿捉影)이라는 말이 있다.

"향상의 일로는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하시거늘 학자들이 공연히 애씀이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죽음이란 모든 형상(形相)에는 자체성(自體性)이 없어 상대성인 몸뚱이라는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상대성(相對性)은 연기법(緣起法)으로 절대성(絶對性)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이 색신의 혓바닥을 굴려서 "아이고" 하는 것인데, 그럼 "아이고" 하는 이놈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 뭣고'이며,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라고 하는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자성(自性)자리는 광활한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가 곧 당금(當今)이며 가고 오고가 없는 역천겁이불고(歷千劫而不古) 항만세이장금(恒萬世而長今)이라, 찰라가 불생불멸(佛生不滅)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인 내 고향인 '이 뭣고'인 것이다.

보적 선사의 오도송은 다음과 같다.

심월고원(心月孤圓) 광탄만상(光呑萬像) 광비조경(光非照境) 경역비존(境亦非存) 광경구망(光境俱亡) 부시하물(復是何物)이라고 했다.

"마음달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삼라만상을 삼키도다. 광명(光明)이 경계(境界)를 비추지 않고 경계 역시 있는 것이 아니니, 광명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니 다시 이 무슨 물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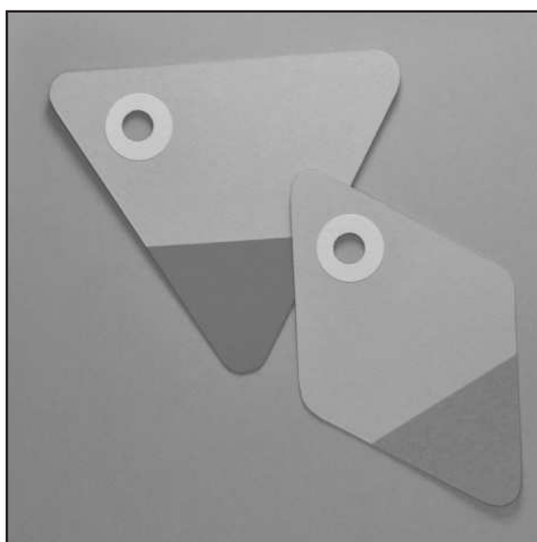
이 마음의 달(月) 하나가 둥글게 떠 있어 그 빛이 천지만물(天地萬物)을 다 머금어 하나가 되나, 그 하나마저 없어진 경계이다.

경허 선사와 만공 스님의 선문답(禪問答) 향상일구(向上一句:깨달음의 한마디)는 경허 선사의 진면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경허 선사가 만공 스님에게 너는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려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고 하니 선사가 대견한 듯 보다가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道力)은 대단하지만 나는 너만큼 도력이 없어서,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다.

"밭을 정성스럽게 갈고 거름을 주고는 좋은 밀씨와 파씨와 깨씨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알뜰이 키워서 밀로 누룩을 만들고 깨로 기름을 짜고 밀가루와 파를 버무려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술과 함께 맛있게 먹겠네"라고 하시자, 그 말을 들은 만공 스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 주 권 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직할교구신도회 5대 회장단 임명

이금석 회장 연임… 기금 전달도

조계종 직할교구 제5대 회장단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직할교구 제5대 회장단을 임명했다. 제5대 신도회장으로는 이금석 현 회장이 연임됐다.

이날 직할교구 신도회는 회당단 명의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583만 9000원을 전달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일일찻집과 스포츠대회 등을 통해 기금 모연을 진행해 왔다.

이날 임명식에서 원행 스님은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해 신도들의 힘이 필요하다. 신도회가 신도와 스님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사부대중 화합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 발원

연탄불공회, 44세대 유류비 지원

대강백 무비 스님의 자비나눔 발원으로 시작된 연탄불공회가 저소득층에 유류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12일 부산 금정구자원봉사센터에서 난방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탄불공회는 무비 스님이 2017년 저소득 난방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조계종부산연합회에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무비 스님과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연탄불공회 전용 후원계좌를 개설했고 신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중구, 강서, 기장, 해운대구, 금정구 등 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 받은 44세대에 유류비 29만원을 전달한다.

회장 심산 스님은 "연탄도 뜻 깊지만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름보일러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전달한다"며 "무비 스님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자비 나눔 원력에 동참하고 소외 계층에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금정구자원봉사센터장은 "평소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남을 위한 행복이 곧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난방비 후원을 위해 함께 해준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수학술등재지 학회 위상 정립"

Interview

임승택 제11대 불교학연구회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학술등재지 연구회가 유일
연구회 인지도 높일 활동 전개
젊은 학자 학술활동 지원 노력
"사회 담론 논의의 장 만들 것"

"제11대 불교학연구회장으로 선출해준 학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구회 회장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교학연구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그는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감사로는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와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임승택 회장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인도불교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 초기불교 수행론으로 200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문과 수행을 겸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요가연수원서 10여 년 동안 하타요가를 수련 지도했고, 미얀마 참매센터 · 쉐우민센터 등서 여러 차례 수행 안거했다. 저서와 역서로는 〈붓다와 명상〉 〈바가바드기타 강독〉 〈빠띠삼비다막가 역주〉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네띠빠까라나 상 · 하〉 등이 있다.

임승택 회장은 향후 불교학연구회를 '우수학술등재지 학회'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불교, 기독교 중 우수학술등재지 보유 학회는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교학연구회가 우수학술등재지 보유 학회임을 알려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교학연구회의 강점인 활발한 토론문화 발전과 젊은 학자들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는 게 임승택 회장의 목표다.

"사실 제 자신이 불교학연구회의 활동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젊은 학자들도 불교학연구회를 통해 자신의 학문 영역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연구회에서도 젊은 학자들의 학회 활동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교학연구회는 연2회 학술대회와 논문발표회, 워크숍을 각각 진행한다. 임승택 회장은 사회 담론과 연계 · 논의할 수 주제들을 학술행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등을 통해 시대적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불교학계의 학술 주제는 주로 문헌학적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불교학의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학연구회에게 개최하는 학술 행사의 주제도 사회 담론을 함께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어르신 행복 불교복지관서 '듬뿍'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경로의날 작품발표회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이 제11회 복운경로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11월 9일 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공연에 이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무대공연, 작품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인 배영애 강사의 사물놀이로 막을 연 기념식은 지난 1년간 복지관을 위해 애써온 지역주민 · 강사 · 직원에 대한 시상식,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와 (주)프로그렉서비스 후원금 전달식,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의 격려사 및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하관수 강사와 배영애 강사가 선운사복지재단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현오 고창푸드마켓 직원이 고창군수상, 정향숙 강사가 고창군의장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개최한 '제11회 복운경로의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어 가수 조기량의 축하공연과 한국무용, 이지댄스, 가요난타, 태극권, 라인댄스 등 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채로운 무대공연, 작품전시 등이 펼쳐져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복지관 주차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네일아트, 이미용서비스, 발마사지, 의료부스, 다문화지원센터 세계문화역사알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대원 스님은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애써주신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울구치소 수계법회 봉행

의왕 청계사, 54명에게 계 수여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1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서는 성행 스님을 전계사로 54명이 계를 받았다. 성행 스님은 "하루에 선을 행하면 복이 반드시 온다"며 "선을 행하려 노력하고 악을 멀리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7주년 법회

종정 법운 스님 "세계평화 간절히 염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 홍원 · 수덕 · 법등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7년 전 인연으로 함께한 사부대중은 세계평화와 불교진흥을 간절히 염원하며 머문 바 없는 한 마음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수행 정진해 복덕을 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소중한 인연찾기 배워요"

금선사서 미혼남녀 대상 '만남 템플스테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1월 10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서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20 · 30대 미혼남녀들의 건전한 만남을 독려했다. 이 기간 참가자 20명은 이명길 사이다연애상담소 대표의 '행복한 인연 만들기' 특강과 △숲속 명상 △새벽예불 등 다양한 사찰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김지원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제5회 향기로운 차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 차인들이 허황옥에 헌다 공양을 올렸다.

한국 차인들, 허황옥에 茶 공양 올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제5회 향기로운 차 문화축제' 성료

한국의 차인들이 김해 가야국 김수로왕의 왕후 허황옥에게 헌다 공양을 올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11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제5회 향기로운 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는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허충순 부산차인연합회 명예회장,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 최순애 한국차인대학 부산분원장 등 차인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에 이어 제1부 헌다례가 진행됐다. 헌다례는 헌향과 헌다 시연으로 시작해 이사장 보혜 스님이 허황옥 왕후에게 차를 올렸으며, 2부에서는 차와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차인과 문학인에게 상을 시상했다. 특히 향기로운문화동행은 허황옥 차인상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상했다. 허황옥 차인상은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받았다. 원효문화상은 황현일 비영리 문화공감 '빈자리' 홍보국장이 수상했으며, 동행문(門)문학상은 문인선 시인이 수상했다. 3부는 한국과 일본 차인들의 다법 시연과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와 함께 도량 일대에는 차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6대 다류 시음 찻자리가 이어져 축제를 찾은 시민에게 품격 높은 차문화를 제공해 박수를 받았다. 시음 찻자리에는 6대 다류라 불리는 백차, 녹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세계 차의 종류와 문화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아울러 일본에서 찾은 다도팀 코우후우 센차 레이시키가 다도 시연 및 차를 대접해 국제 차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5대 종단 종교인 '한몸평화' 기원

전북서 '하나의 날' 맞아 이야기마당 펼쳐



전북지역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날 행사가 열렸다.

11월 10일 전주 고백교회당에서 열린 행사는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 5대 종교인들이 11월 11일 하나의 날을 맞아 '통일 꽃 피네 한몸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원불교 성도종 교무, 천주교 박병준 신부, 천도교 김명국 선도사, 개신교 이현주 목사가 이야기 손님으로, 현진 스님과 선덕 교임 등 각 종교 지도자와 신도 100여 명이 동참했다.

천주교 이병호 주교는 여는 말을 통해 "하나 되고자 하는 거대한 민족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모든 사람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종교의 대표들의 한몸평화 공동 기원식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탑밴드와 진성 스님, 현진 스님, 선덕 교임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모두 하나 되자는 의미를 담아 '광야에서'를 개사해 불렀다. 또 종교인 연합중창단은 참석한 대중들과 함께 '사랑으로'를 노래하며 이 땅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으로 승화한 부모의 수능기도

해남사, 수능 전날 〈금강경〉 독송 정진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능을 하루 앞둔 법당, 수험생의 얼굴 사진이 경전 위에 놓여 있고 부모들은 합장한 채 〈금강경〉을 독송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의 독송에 맞춰 〈금강경〉을 읽던 불자들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발원을 잊지 않았다. 자식의 성공을 위한 무작정 소원을 비는 모습이 아니었다. 경전을 통해 얻은 참된 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삼는 성숙함이 비쳤다.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는 11월 14일 경내 설법보전에서 '원(願) 성취를 위한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법회'를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불자들이 직접 참여 소감을 전하고 주지 혜원 스님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전국 수험생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때, 해남사는 새로운 기도 방향을 제시하며 수행의 의미를 금강경에서 찾도록 권유했다. 불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해남사를 찾아 금강경을 독송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며,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2시 등 3차례에 나눠 하루 9시간, 총 21일 동안 금강경 독송 법회에 참여했다. 정진 기간 불자들이 금강경을 독송한 횟수는 총 441번이며 해남사 신도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향을 맞아 불자들은 경전에서 수행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전 독송으로 지혜의 길을 얻었다고 말했다.

매일 9시간 21일 독송 참여
작복기도 넘어 수행 뜻 담아
200여 불자 총 441회 독송
"신수봉행 자세로 행복하길"

김영숙(여래행) 불자는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이 금강경 독송을 하며 지냈는데 19일째 되던 날 스님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며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시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했다. 함께 해준 도반들의 응원으로 회향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영선(법성심) 불자는 "정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화두 들고 참선하듯 일념으로 경전 독송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새로운 수행법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한 도반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의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회향법회에서 합장한 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불자들.

회향법회에서 주지 혜원 스님은 무엇보다 '신수봉행(信受奉行)'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혜원 스님은 "금강경 마지막에 개대환희(皆大歡喜)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 했다. 독송 기간 동안 얻은 가르침을 지니고 매순간 부처님처럼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복을 짓는 불자가 되라"고 격려했다.

해남사는 1911년 10월 '통도사 울산 포교당'으로 건립됐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및 불교대중화와 민족교육을 선도하는 문화교육 공간이자 청년운동의 구국도량이었다. 지난 9월 취임한 주지 혜원 스님은 해남사의 비전을 포교·교육·수행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개최한 〈금강경〉 독송법회를 확대해 '경전독송회'를 창립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앞으로 경전독송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이끌고 더 많은 경전을 익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또한 형식도 경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나가 삼라만상 법음을 들려주고 섭생화생까지 제도하는 불보살의 마음을 익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귀의·오계'로 부산불자 신심 점검

조계종부산聯 11월 24일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

승보공양 및 성도재일 등 법회를 열고 신심의 법석을 마련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불자의 기본인 오계를 강조하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회를 새롭게 마련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불자가 되려면 첫 관문인 불법승에 귀의하는 삼귀의로 믿음을 세우고 생활 가운데 오계를 지켜 부처님 법을 행해야 한다"며 "법회를 통해 신심을 고취하고 부산 불자에게 다시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계사는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이며 존중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전임회장인 수불·수진 스님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인 원범·지현·정현·화랑 스님이 맡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승보공양 법회 모습.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법회에서 연비 대신 통도사, 상원사, 건봉사,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보궁에서 직접 담아온 관정수(灌頂水)로 수계의식을 진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앞서 11월 5~6일 각 보궁을 방문하고 관정수를 채수했으며, 12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관정수를 합수(合水)하며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더욱 성장하고 행복할 것을 기원했다.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는 지난 11월 1~8일 부산 관음사서 '삼귀의와 오계'를 주제로 열린 '제2회 비니법석 평등법회' 회향 자리이기도 하다.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율'을 뜻하며 비니법회 기간 동안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율사 스님들이 릴레이법석을 진행했다.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공산 아미사 중창불사 회향

팔공산 아미사(주지 덕현)가 11월 12일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경내 대적광전 큰법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용주사 회주 현근 스님, 진오·정혜 스님, 해동사 주지 선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수계법회 증명법사 현근 스님은 "마음의 복덕은 계를 조심하면 죄를 지을 일은 없다"며 "상대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참회와 기도로 업을 소멸해 가정과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해 인간의 위대한 존재, 존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그대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 하리. 여래는 다만 길잡이일 뿐이 길을 닦아 나아가는 자 마(魔)의 속박에서 결정코 벗어나리라.

〈법구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도사(6신통大도사)

책이름검색,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산문철학 1개월 완성

▶ 책임지도
▶ 고승비급 전수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3936-2295

곽민 신기원

【예약상담만 가능】

농협 계좌
302-1325-1333-31
곽영리

문의 010-8620-2334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이면 가능합니다.
- 임대나 매매가능

010-7678-5536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①

아름다운 서울의 사찰에서
조석예불 보시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맺으소서
010-8688-358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②

경상도 고향인
30대 비구니 스님을
부전으로 모십니다.
010-6893-5040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불교 공부 모임(무료)

① 회원 간의 자율적 공부, 수행
② 지도법사 수행안내, 집중수행 지도
● 대상: 누구나 가능 ● 일정: 주말(토)에 진행예정, 차후 개별적 일정 안내함 ● 모임: 묘법연화경 강독모임/참선모임/명상모임 ● 회비: 자율 보시(점심공양은 각자 지출)
무료 인생상담, 무거운 짐 내려놓는 법 강의
문의처 :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053)652-2714 / 010-4844-7002

창건불사동참

- 양산 통도사 부근 불사 중인 산사사찰 불사에 동참하실 보살님이나 비구니 스님 연락바람
- 화주보살, 종무보살, 원주보살, 공양주 보살, 소임보실 분 동참. 연락바람

010-4640-4747

사주팔자/관상/손금 수강생 모집(비범)

① 스님 우대, 무속, 일반인, 철학관 개업하실 분
② 말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속성지도)
③ 수강 3개월 지나면 개업 가능(뒷바라지 계속 지원함)
④ 개인 지도 가능(상담 후 시간조절)

부산 미래 예측 연구원 원장 도 담 합장
H·P 010-5823-2710 TEL 051-804-8688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부터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 통증 치료까지 전수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 박사 강성진 교수
010-4844-7002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거울을 닦아 때가 없어지면 밝음만 있는 것과 같아서 욕심을 끊어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을 알 수 있다.

〈사십이장경〉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0억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약 34평
◎ 요사 : 34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북
◎ 총 :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보장...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6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광 진 불 사

◎ 위치 : 강원도 천년도량
◎ 부지 : 7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70평. 외
◎ 매가 : 20억 3천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역세권
◎ 매가 : 11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85-17 중심지
- 대지:100평,건평 70평,1층 전체
- 건물: 대웅전, 삼존불, 법당 외 방3, 화장실3, 도시가스
- 보증금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1,200만원(상담조절가능)
- 대구 최고 중심지. 단독 1층 전체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 면적: 부지 약 600㎡, 건물 약 80㎡
- 법당, 삼성각, 방2, 부엌
-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주차가능
- 기도하기 좋은 곳
- 가액: 1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7(연산동, 호성빌딩)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 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암 자 안 내

- 위치: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1031번길
- 토지 120평. 건평 약25평 (등기되어있음)
- 지상권만 양도(정남향.지하수)
- 토지 1년 도지세 쌀 한가마
- 삼존불 봉안 양도 금액 1900만원

010-6783-25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 방2 주방 화장실 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 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길70 (산을 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대전통영 고속도로 고성IC에서 약15분거리
- 대지: 총 3,356평. 건물 84.5평 (대웅전 37평 포함)
- 120미터 지하수 사용. 가건물 약 60평(숙소 및 식당 등)
- 용도: 사찰 및 요양병원, 복지관 등 조건 좋음
- 사찰이 필요치 않고 요양병원 등이 필요만 할시 분할 매각 가능. 분할 매각시 [대지 1,490평. 건물 47.2평(단독주택)] 가능. 지하수 공동 사용가능함
- 매각대금은 상호 절충가능함

010-8785-1574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넓음 ●대지: 약100평
- 가액: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창고 및 화장실 15평
- 철골, 지붕강판기와
- 가액: 1억 4천

054-683-6496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가액 : 2억 1천만원

010-3828-98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4층 건물 내 2층 40평. 법당, 요사,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경북 고령군 ●땅 100평
-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 산신각 2평, 요사체 20평
- 마당: 약사여래불, 용왕단
- 방3, 화장실 3
- 가격: 1억 9천 5백만원, 융자 3천 7백만원

010-9137-3838

사 찰 안 내

◎ 요사채 30평 1개, 40평 1개
◎ 법당 30평(깨끗)
◎ 노천불, 용왕당 대지 100평
◎ 田(밭) 1,000평
◎ 국유지 500평
◎ 가액: 5억 5천

◎ 유실수 과수원, 田(밭) 700평
◎ 가액: 2억

- 위치: 경북 예천. 현지점에서 신도청 8㎞, 예천군청 8.5㎞
- 현 땅값 시세 5억 5천~6억 사이
- 사단법인 종단 함께 인수가능 ●답사 후 가격 절충

010-3526-7066

포 교 원 안 내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코너 건물에 시장 옆
- 2층 건물(2층) 20평(남향)
- 건물주가 협조 권리금 2백만원
- 보증금 5백만원 / 월세 50만원 (주위 조건이 양호)

건물주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 텃밭있음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매산동 매산공원 100미터 옆
- 부지: 대지 100평(하천부지 약 150평)
- 법당: 철근강판 조립건물 30평 내. 리모델링 법당, 공양간, 창고, 차고
- 요사채: 30평 지하수(상수도 신규설치)
- 가액: 2억 8천만원(부지, 건물, 공사금 실 거래가)
- 스님 건강 상 급히 인연을 찾습니다.

010-5488-3339

사 찰 안 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19
- 대지 200평, 군임대부지 약 300평
-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황토방 4평, 창고 약 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금액: 1억 8천. 가격절충가. 집기일체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 19번지/21-2번지/22번지
- 3필지 도로접. 5m 넓이로 3필지 안까지 차 들어감
- 청정지역. 사찰 및 암자 적합
- 3필지 14600~14700평
- 1억 600만원. 조정가. 상담 후 결정

주인직 010-8666-6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라이 라마, 민주적 절차로 선정한다

14대 달라이라마 11월 5일 외신 인터뷰서 밝혀

박지수 객원기자

티베트불교 최고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후계자를 민주적으로 뽑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달라이 라마는 전임자의 환생자로 지목된 어린 소년이 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현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가 변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11월 5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니혼케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기존 달라이 라마 선출 방식은 오래된 제도다.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후계자로 덕과 지혜가 있는 고승이나 학식이 뛰어난 학승을 언급했다. 적절한 자질을 갖춘 20세 정도의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동안 어린아이들 가운데 환생자를 찾아 교육해온 전통적인 환생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 가운데서 후계자를 찾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를 가톨릭교회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로마교황을 추기경들의 선거에 의해 뽑는 것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서는 콘클라베라는 절차를 통해 교황을 투표로 뽑는다. 이런 후계자 선출 방식은 이달 말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고승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후계자 덕 · 지혜 있는 고승
또는 20세 전후 인물 적합
'中 간섭 최소화 위함' 분석
이달 말 고승위원회서 논의

달라이 라마의 갑작스런 후계자 선정 방식 변경 논의와 관련해 언론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수년 전 인도 병원에서 전립선암의 초기증상을 발견했고, 미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완치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런 후계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51년 티베트를 점령하고, 달라이 라마의 정통성 부재를 티베트 지배의 명목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환생여부의 검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독자적인 후계자를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14대 달라이 라마가 최근 전통이 아닌 새로운 제도로 후계자 선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달라이 라마 공식 홈페이지

달라이 라마는 또한 이 인터뷰서 로힝야족 문제도 언급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과 얘기를 나누고 편지를 보낸 적 있다고 언급했다. 수치 국가자문은 그에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편지에 대해서는 답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도의 테러라는 보도를 보고 매우 슬펐다. 부처는 이슬람교도를 도와줬을 것"이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살상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대 규모 불교문헌 온라인 전시

BDRC, 약 1만1000개 문헌 인터넷아카이브 공개

불교디지털자원센터(the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이하 BDRC)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교문헌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세계 예술 · 문화 관련 사이트 마이모던멧(My modern met)은 11월 11일 "1500만 쪽 규모 이상의 불교문헌을 보유한 BDRC가 그 중 일부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 불교문헌을 전 세계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헌들은 불자 및 수도승들에 의해 쓰인 것으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BDRC는 설명했다. BDRC는 그동안 네팔의 산스크리트어 문헌, 몽골국립도서관 소장 전체 티베트 컬렉션 등 다양한 문헌들을 디지털화해 왔다.

심지어 때로는 전통을 보존하는 희귀한 문헌들도 우연히 발견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는 BDRC 직원들이 티베트 북쪽 지방 사원에서 발견한 문헌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는 11~12세기 전통을 잃어버린 카담파(Kadampa)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문헌이었다. 이 같은 디지털화 덕분에 Kadam Master Sharawa Yontan Drak(1070~1141)의 '〈보리도등론〉 해설' 등과 같은 고대 작품들을 전 세계 불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



11~12세기 카담파 지도자가 쓴 〈보리도등론〉 해설. 〈보리도등론〉은 인도의 아티샤(982~1054)가 지은 뒤 티베트 카담파를 거쳐 총카파가 쓴 〈보리도차제론〉의 기본이 됐다.
사진출처=My modern met

BDRC의 명예전무이사 제프 월만은 "BDRC의 창립 취지는 온라인을 통해 '보물' 같은 불교 문학들을 전파, 보존하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개개인이 문화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개개인은 문화 보존을 위한 올바른 조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진귀한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조직 인터넷아카이브(the Internet Archive)와 협력으로 성사됐다. 현재 BDRC는 약 1만1000개의 불교 문헌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아카이브를 통해 공개 중이다. BDRC는 1999년 불교학을 보존 · 전파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헤비메탈 공통점 '無想 고찰'

록스타 폴 매스비달 인터뷰서 견해 밝혀

미국의 록스타 폴 매스비달(Paul Masvidal · 47)은 20년 동안 불교 수행자로 살아오며 '불교'와 '헤비메탈' 장르의 연관성을 깨달았다. 그에 따르면 너무도 다른 매력의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고찰'이란 공통점에서 마주한다.

'트리사이클(tricycle)'은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기타리스트이자 작사가, 보컬리스트인 폴 매스비달을 조명했다. 록밴드 'Death'에서 음악 생활을 시작한 그는 '내면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통해 장르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을 터득해 왔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교와 헤비메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불교는 '조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반면, 헤비메탈은 시끄럽고 과격하다. 하지만 두 가지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상(無想)'과 같은 불완전한 주제를 탐험하는 의지다. 극한 메탈 장르에서 그 죽음에 관한 불안감은 예술 형태로 표현된다. 불교는 앉아서 무상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또 다른 레벨로 끌어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어릴 적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는 어머니를 '좋은 친구'이자 자신을 '영적 존재'에 눈뜨게 한 안내자라고 표현한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저는 불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든 20대를 겪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교를 제 마음에 직접 투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상의 문제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바다 통찰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관용을 키운다는 록스타 폴 매스비달.
사진출처=트리사이클

그가 즐겨하는 명상은 테라바다 통찰 명상이다. 그는 "그 명상법은 내게 가장 적합하다"며 "관용을 일구는 것이 전부다. 누가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달라이 라마가 '친절'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호스피스 봉사자로 일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것을 바로 인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 '불자'이자 '밴드'로서 활동한 20년을 기점으로 첫 솔로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 이 역시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삼는다. 트리사이클은 "그의 미니앨범은 음악 테라피 만큼이나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다르마 수행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남방불교 3국, 불교진흥 협력 강화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제1회 리더스 컨퍼런스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 남방불교 3국이 불교진흥과 발전을 위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베트남언론 '베트남뉴스'는 "11월 12일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 불자들은 세 나라의 불교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서 열린 제1회 3국 불교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사진〉

비엔티엔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라오스 불교펠로우십기구 대표 만하 응곤 댐롱번과 라오스 국가발전협회 사이솜폰 폼비하네를 비롯한 3국 불교도 57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라오스 국가발전협회와 불교펠로우십기구가 주관한 이 회의는 3국 불교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불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만하 응곤 댐롱번은 "불교는 승려를 비롯해 불교 초심자, 일반대중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라오스의 문화와 풍습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며 "이 회의는 3국 불교의 협력을 높이고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베트남뉴스

3국 불교지도자들은 불교 확산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함께 불교탐방로를 마련하고, 불교발전에 대한 경험을 쌓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불교 관련 워크숍과 전시회를 열고, 교환학생 교류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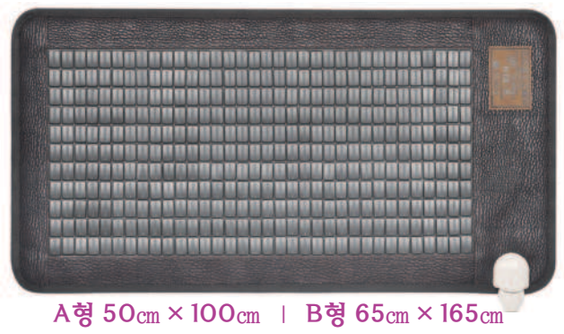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기도 · 수행 · 교육도량 天佛寺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① 대웅전
② 1층 : 요사채
2층 : 설법전
③ 심검당 (종무소)
④ 성관음전 (OKIYOME ROOM)
⑤ 일주문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

찻물 흐름따라 느낀 無我의 지혜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5. 자비다선 차명상

2) 차명상으로 얻는 안정

차가 집중명상과 사유통찰명상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차는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혼침을 막고 정신을 맑고 깨어있게 한다. 집중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차는 커피와 다르게 발산하는 기운이 있다. 찻잎을 차로 법제해도 그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발산하는 차의 기운은 몸의 기혈을 열어주어서 몸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한다.

화가 나면 화의 불기운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화의 불기운은 목, 혀, 눈, 머리에 악영향을 주어 갖가지 병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이 차를 마시면 물의 청량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불의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 좋은 차는 마시면 마실수록 차의 그 기운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차의 기운이 의식을 각성시키고 집중과 분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운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기운이 있는 곳에는 심리가 일어나며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지며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 듯이 뻗쳐가는 경안(輕安) 현상이 나타난다. 경안 현상은 매우 중요하다. 경안이 일어나면 번뇌 망상이 줄어들고 관찰대상에 집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인지 아닌지는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운은 의식에 영향을 주어 망상이 일어나게 한다. 반면 경안은 대상에 집중하여 놓치지 않게 한다.

따라서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할 때 차의 역할은 명상을 도와주고 다선일미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 한국의 선종사찰에 어김없이 차밭이 있는 이유이다. 중국 육조 혜능대사가 주석했던 남화사에는 지금도 좌선에 들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시고 수행에 들어간다. 한국 선원의 지대방에도 차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수행자들이 늘 차를 마시면서 수행하는 전통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로차 마시기 명상 실습

차의 기운과 몸속의 기운은 명상 속에서 공명한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명상하면 몸에서 왕성한 기운의 흐름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경안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신체 어느 부위에 마음을 두게 되면 자연히 기운의 흐름이 마음을 둔 신체부위로 흐르게 된다. '색 · 향 · 미 감로차 마시기 명상'은 발가락과 손가락, 정수리에 의식을 차례로 두거나 동시에 두는 찻물 스며들기 명상이다. 의식이 있는 곳에 기운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차 기운과 공명한다. 그 공명으로 찻물과 함께 기운이 온몸에 스며들 때 몸과 마음이 반응한다. 그 반응이 변하는 무상, 무상하므로 불만족의 고(苦), 불만족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자아가 없음인 무아를 관찰하여 지혜를 얻는다.

'색 · 향 · 미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발가락이나 손가락,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찻물 스며들기를 할 때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일으켜 기운을 발가락으로 내리거나 손가락으로 내리거나 정수리 쪽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의식이 있는 곳이면 바람(에너지)이 그쪽으로 저절로 흐르는데 의도적으로 기운을 움직이면 몸에 결절이 생겨 기공병(氣功病)에 걸릴 수 있다. 바람은 기운이며 에너지이다. 우리 몸에 흐르는 기운들을 잘 알고 명상할 때 명상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몸속의 다섯 가지 기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 유지의 바람[持命氣=持命風]은 정문 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슴에도 있다.

둘째, 상승하는 바람[上行氣=上行風]은 가슴과 흉부에 위치하고 있다. 가슴에서 기운이 상승하여 말하고 호흡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말과 생각, 호흡으로 인해 기운은 더 위로 상승한다.

셋째, 편재의 바람[遍行風=遍行氣]은 가슴에 위치해 있다.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를 보낼 때 기운도 함께 흐른다. 기운의 흐름으로 인해 온 몸으로 피가 돈다고 볼 수도 있다.

넷째, 머무름의 바람[等住風=等住氣]은 위장과 복부에 위치해 있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기운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아
기운 있는 곳에 심리 일어나고
마음 있는 곳에 기운 흐름 있어
茶 마실수록 몸과 마음 가벼워

다섯째, 하향하는 배설의 바람[下行風=下行氣]은 직장, 창자, 회음부에 위치하고 있다. 노폐물을 배설하고 다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운이 아래로 움직인다.

이와 같은 몸속 다섯 가지 기운의 흐름이 차의 발산하는 기운, 명상의 집중력과 상호 의존하여 공명을 일으키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의 신체기능이 향상된다. 산란심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며 집중력이 높아진다. 명상 대상을 꿰뚫어 보아 지혜가 일어나게 한다.

색 · 향 · 미 감로차 마시기 명상의 실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시작을 알리는 죽비 세 번치고 좌종을 한 번 울린다.

○ 좌종 소리따라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추세운다. 눈은 반쯤 감고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둔다(10여 초).

○ 미리 준비한 찻잔을 든다.

○ 찻잔을 들어 올릴 때의 무게감을 알아차리고, 찻물의 움직임이 잔잔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 찻잔을 입으로 가져오면서 찻잔 속에 담긴 연꽃문양을 바라보고 찻물의 맑고 투명한 찻물빛을 주시한다.

○ 찻잔을 들고 마신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빛깔과 향기, 그리고 맛을 음미한다. 색 · 향 · 미를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 모금 음미한다.

○ 찻잔을 내려놓고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향과 차맛을 음미한다. 찻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부피감과 무게감을 느낀다.

○ 색 · 향 · 미를 머금은 찻물의 맑고 투명한 백색의 미세한 알갱이를 안개 같은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그 안개가 온몸을 감싸고 마치 모래에 물이 스며들 듯이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 좌종을 한번 친다. 좌종의 울림이 끝나고도 잠시 동안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 의식을 발가락 끝에 두고 찻물이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 좌종을 한 번 친다. 좌종의 울림이 끝나고도 잠시 동안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 의식을 손가락 끝에 두고 찻물이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 좌종을 한 번 친다. 좌종의 울림이 끝나고도 잠시 동안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 의식을 머리끝 정수리에 두고 찻물이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 좌종을 한 번 친다. 좌종의 울림이 끝나고도 잠시 동안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 의식을 동시에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두고 찻물이 온몸의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 몸 전체 세포에 스며들었다고 생각되거나 스며들지 않고 목까지 차올라왔다고 판단될 때, 찻잔을 입에서 떼고, 가슴 부근에서 잡고 그리고 조용히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펴본다.

○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찻잔을 찻상 위 제자리에 놓는다.

○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필 때는 그 반응의 움직임, 변화를 알아차려야 한다. 변화와 변화를 통해 육체적 · 심적 고통이 오는 것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인식한다. 불만족스러움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재하는 주체가 없어 무아이며 그 불만족의 고통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실체가 없어 공함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 좌종을 한 번 친다. 좌종의 울림이 끝나고도 잠시 동안 온몸 스며들기를 한다.

○ 천천히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차 맛을 음미한다. 찻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본다.

○ 차의 물빛처럼 맑고 투명한 자비의 마음으로 차의 색 · 향 · 미가 온몸에 스며드는 흐름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구의 모든 강물로 흐르고 그 흐름이 유유히 흘러 바다에 도달함을 떠올린다. 우리 몸의 부분 부분들에서 흘러내린, 갖가지 이름을 가진 모든 강물들이 흘러 바다를 만나면 바다라는 하나의 맛[一味]이 되어 이 세상 모두가 평등해짐을 생각한다.

○ 죽비를 세 번치고 합장하고 끝마친다.

감로차 마시기 효과

① 집중력이 생긴다. 이 집중력으로 마음의 근육이 생겨 불안감이 사라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마음의 동요가 현저히 줄어들며 대처 능력이 생긴다.

② 전체를 보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부분에 집착하여 걱정이 많고 매사가 불만스러우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현상이 완화된다.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거나 해소된다.

③ 심안이 생긴다. 몸 안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보고 무상, 고, 무아, 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착각과 왜곡이 일어난다. 즉, 자신의 처한 현실과 목표치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신과 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진다. 또한 왜곡된 시선으로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여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⑤ 몸이 건강해진다. 몸이 가볍고 기운이 왕성해지며 머리가 맑아진다. 즉, 갈등과 집착의 부정적 에너지를 사랑, 연민, 용서, 베풂, 희망 등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치유의 힘이 생기고 건강해진다.

⑥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생기며 의식이 명징해지면서 편안해진다.

⑦ 마음의 고요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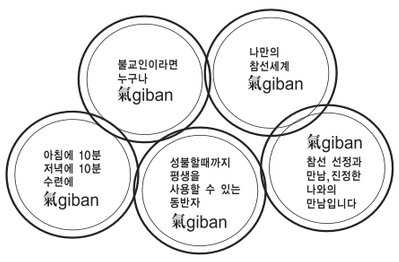
⑧ 지구의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각기 다른 강물의 맛이 바다의 맛 하나[一味]로 되듯이 나를 포함한 일체 모든 것이 일미임을 이해한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222호 현대불교
2018년 11월 21일(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코드를 똑바로 꽂아야 한방의 식구가 환하게 살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인간이라는 고등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중세계에서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허나 우리가 열 번을 하고 백 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되지 않는다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고요. 이름만 그냥 '주인공!' 이렇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하시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불이 들어오게 코드를 꽂아야 할 텐데 똑바로 그 코드를 꽂느냐 못 꽂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바로 꽂아야만이 불이 들어와서 한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도 다 환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제대로 꽂질 못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가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짧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첫째 말할 것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신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 드렸죠. 그뿐입니까? 태어났다면 우리가 먹히고 먹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또 인간 자체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히고…. 뺏기기만 하면 좋은데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훌렁 나가 자빠지고 하죠.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에 곤충에서부터, 짐승들로부터, 인간까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아주 극난하게 허우적거리고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생 나와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역시 물주머니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는 그 물주머니에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빼앗고 서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서 어찌 "이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만 너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치도 거저가 없고 에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러면서도 극난하게 뺏기고 뺏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번쯤 넓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나는 지금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극난하게 헤매다가 한철 나기 전에 알아야 할 이 문제를, 한철 나고 세세생생에 뒹굴면서도 아예 몰라서 그 물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먹고사는 게 뭐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의 생명들을 위해서 먹어 줘야 하고, 또는 내 몸뚱이가 집합소가 돼서 그 안에 따뜻하게 살게 해 줘야 하고, 심부름도 해 줘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지금 '나' 냐고 하신다면 모두 내가 아닙니다. 가짜 나도 아니고 진짜 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산다, 더불어 같이 먹는다,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곤충 하나 빼놓지 않고 풀포기 하나 빼놓지 않는 그러한 한마음이 되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 혹성이라고 하고 우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은하계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몸뚱이 하나에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를 잘못 생각하면 그 전체 생명들이 그 생각을 따라서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잘 생각을 한다면 전체가 따라서 잘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만들어 놓고 한생각이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소뇌도 있지만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을 해서 모두 일체가, 공장 공장이 다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한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고, 한 블랙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샛별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은하계라고도 할 수 있고, 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체가 한생각에 의해서 모두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한생각을 잘못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악업 · 선업, 영계성 · 윤회성 또는 인과성 · 세균성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모두 살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을 했죠. 오신통이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컴퓨터와 같다고.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됨으로써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오산을 하고, 자꾸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속고 있습니다. 그건 의식 속에서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에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되는 건가.' 이거는 한 찰나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대해 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냥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대로 그 의식을 따라서 다시 차곡차곡 입력이 되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가 항상 그러죠. '주인공 너만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네 몸뚱이를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 주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모든 거를 거기 맡기고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컴퓨터에 입력된 게 과거에 입력된 거는 나오는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되는 게 들어가면서 새로 생각해서 넣은 것이 새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절에 가면 손을 꼽고 기도하고 빌고, 나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하고, 잘되게 해 달라 그러고 병 낫게 해 달라 그러고, 해 달라고 그러는 데서 그만 공덕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광대해서 부처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을 한데다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가 그러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공부를 안 한다면 정신계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빈집이 되고, 빈집이 됨으로써 물질계에서만 허덕거리다가 그냥 죽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탈히 지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데, 이 일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움죽거리고,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모두 눈에 보이지 않게 모두 살고 있나. 하다못해 돌 한 쪽까지도.' 인생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공한테 왜 '너' 라고 하는가? 내가 '너' 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하하하. 또 감사제를 지내라고 했더니 이건 고사 지내는 거나 같은 게 아니냐? 또 이건 잘못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질문해 왔고요, 또 부산에서 설법할 때 부처님을, 부산에서는 모두 각각 집집마다 모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각각 집집마다 모시는 게 어떠냐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또 병원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방편상 내가 먹는 약을 줬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한 식구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 강박감과 허탈한 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로 채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와서 급하게 닥치면은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종잡아서 가라앉혀 놓고 관하게끔 만드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또 그 사람들이 80%는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나 부모들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말입니다. 그냥 살다가 갑작스럽게 별안간에 형제가 뭐, 몹쓸 병에 걸렸다고 그냥 대번에 와서 하니 그 사람 자체가 그릇이 만들어져야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깃불을 들어오게 할래도 가설을 해 놓고 전기가 들어오게 만

☞ A18면으로 계속

참 된 나를 찾는 60일간의 여정

불기2562(2018) 무술년
재가(在家) 동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수행기간
불기 2562(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부터
불기 2563(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까지

방 법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삼귀의]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 [선택수행]

대 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수계를 받은 이를 불자라 하고,
삼귀의·오계 수계를 받은 불자만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듯이….

불교신도로서 책임과
지혜로운 생활을 다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수계 삼귀의·오계 대법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문의 : 051)501-7554
접수 : 소속사찰 종무실
동참금 : 1만원

전계사
성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일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장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

한 생 동안 배워 익히고 깨달으면 세세생생 그대로 자유인!

☞ A17면에서 계속

드는 법인데 하물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제삼자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는 나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부모네가, 50%, 60%는 부모네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취미가 없어지는 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도 이거 부모가 상식적으로 챙겨 줘야 할 문제들을 모두 못 챙겨 주고 있는 것을 내가 아주 눈으로 선연하게 봅니다.

첫째는 애들이 공부를 할 때에 너무나 그 강박감이 어깨를 누르고 스트레스가 되고 떨리고 무겁고 이런 데다가 하니까 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애들도 피로회복제를 한 알씩 꼭 먹여야 되고, 종합비타민 하나씩은 꼭 먹여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몸뚱이는 어디까지나 심부름하는 집입니다. 집이 한군데 어디가 허술해지면은 기울어집니다.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남편이 부인을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건 서로 간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으로써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지, 육신이 먼저 움죽거리면서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통신이 되고 해서 살아나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식이다 부모다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 됐으면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만이 아이들도 안도감을 갖고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떨리지도 않고 여여하게. 그런데 "야! 이…" 어떤 집은 "요놈의 새끼야! 너는 배울 시기에 배우지도 않고 만날 잠만 자고 놀러만 다니고, 요놈의 새끼 밥 바가지 차기 똑 참하다." 요러고 훌쩍 돌아선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공부해! 공부해!" 하고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좋은 얘길 해도 열 번 이상 들으면 싫증이 나고요, 아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여러분도 그때를 지내보셨으니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층 더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자기 그릇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 그릇을 좇아가 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자식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은 자식도 그렇지 못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아니라 즉 자깁니다. 즉 자기예요. 2세, 자기. 그런데 자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는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걔 차원에서 그냥 막 내뜨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가친척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은 직원이라도 그렇고, 또 공장을 하면 공장 직원이라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마음, 한생각을 내는데 잘 내게끔 이끌어 주는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허허허. 가정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한생각을 잘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분이 공장을 하는데요, "스님!" "왜 그래요?" "공장에서 자꾸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손가락도 부러지고 손목도 다치고 일이 왜 그런지 이익이 남질 않고 자꾸 그런 데로 돈이 빠지고 도저히 이거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 보지그래. 그 기계도 말이야, 새로 들여 놓은 기계도 그렇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주인이 모든 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한번 진짜로 믿고 생각해 봐."

그리고 이 감사재라는 것은 화목재라고 생각하라, 화목재. 초하루나 보름에 떡을 해서는, 이게 떡도 요즘은 맛이 없어요. 모두 먹을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기증떡, 왜, 저 보풀보풀한 거 있죠? 그런 걸로 한 서너 조각 큰 것 해서 그냥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 초 켜 놓고선 그냥 그저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기계 하나도 빠짐없이, 하다못해 사람의 마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마음으로서 구성돼서 우리가 모두 제일로 '주인이 하는 거니까.' 하고 감사재를 지내고 화목재를 지내고 화목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면, 껄죽껄죽했던 마음도 녹아지고 같이 화합이 됨으로써 운영이 잘돼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일같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넉넉히 베풀고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 돈이 생기면,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는 거를 전부 알게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보태 주고 이렇게 해나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3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모릅니다. 단합이 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고사입니까? 화목재지. 이거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하다못해 기계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람이나 말하고 그러는 줄 알지만 하다못해 풀포기도 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장 안에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 출납을 하고 모두 가지각색으로 여러분이 다 분야마다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걸 일러 줍니다, 화목재로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스님이 고사 지내란 말도 없더니 왜 저렇게 고사를 지내라 하나?'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뚝뚝하고, 얼마나 잔재미가 없고, 얼마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화목재지 어떻게 해서 고사가 됩니까?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뭐 음료수라도 사다 놓든지 맥주라도 한잔 갖다 놓고 같이 화합적인 얘기를 나누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 보자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렇게 화목하게 해 나간다면 어느 누구가 그걸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지언댄 아마 귀신의 마음도 그래서 한마음이 돼 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붙이기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상업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바깥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추수해 들일 게 없어요. 그렇듯이 내 자식들의 농사를 잘 지어야 추수를 해 들일 게 있죠. 모두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아까 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버림받고 나온 사람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애가 병원에서 버림받은 것은 몸이나 머리나 이만큼씩 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속수무책이죠.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분이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식구가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가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 불행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다가, 즐거운 가정으로 다 만들어 줄 때에 어떠한 방편으로 해야만이 그게 즐거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나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 약은 성한 사람이 먹어도 아무 탈 안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소박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80%는 병원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낫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저 스님이 저거는 특별히 날 줬으니까 '특별히 스님이 날 주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정녕코 나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편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서 버림 안 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치게끔 해 주고 또 '병원에 나는 안 가겠다.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재료로 삼겠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밀어주고, 이거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지, 내가 무슨 그거를…. 내 속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즉시 앉아서 고치시도록 하세요. 하하하.

> **모든 거를 거기 맡기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컴퓨터에 입력된 게 과거에 입력된 거는 나오는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되는 게 들어가면서 새로 생각해서 넣은 것이 새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부처님 모시는 거요. 부산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재차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각자 일본에는 그 부처님을 이렇게 집에다 모시고도 정열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밥을 거기다가 먼저 떠 놨다가 그냥 내려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모셔 놨다 하면 향 초 켜고 그냥 온통 저녁이면 앉아서들 기도를 하느라고 모두 그냥 거기에 매달린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사불(邪佛)이 돼요.

사불이 되면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하던 거를 자손들이 안 하면 아예 그냥 좋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죠, 사불이기 때문에. 또 둘째는 그것이 사불이 되기 때문에 그저 이럭하다가 조금만 안 해도 문제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내가 항상 거기에 의존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건 맛볼래야 볼 수도 없고 자기 깨친다는 거는 말도 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거죠. 자기도 마구니가 되고, 또 부처님도 사불을 만드는 거고 세세생생에 이거는 좋은 일이 못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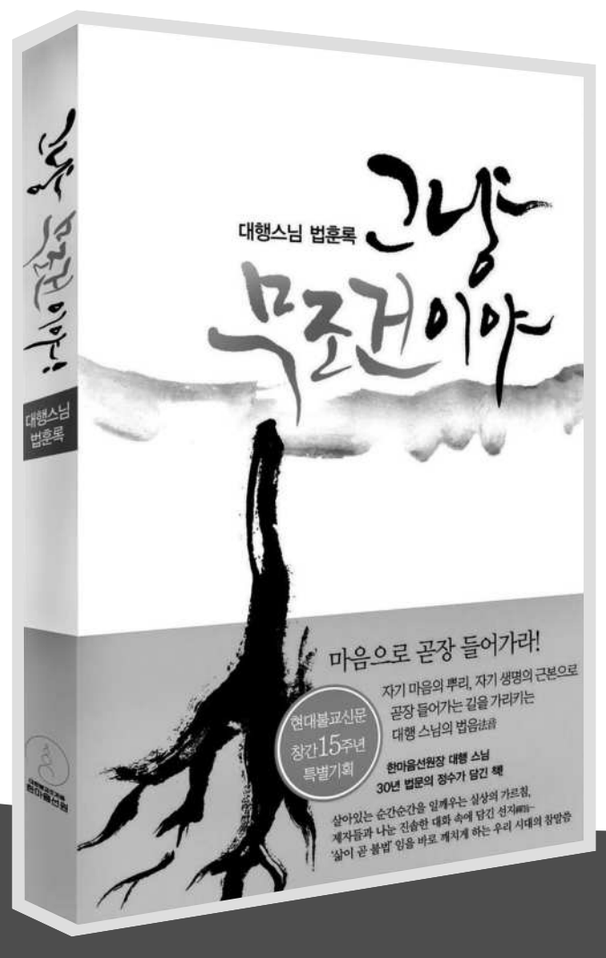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거를 모신다고들 하니 지금 가정에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며 살기가 얼마나 급급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할 사이가 없는 집들도 많은데, 하물며 그거를 놓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만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몸뚱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집합소인 이 몸뚱이가 바로 내 부처가 아닐까요. 이 부처님 속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 부르시죠? 그거 부르시다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게 그대로 법입니다. 왜 우리는 현명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부처님께서 "너희는 너 먼저 믿고 너 먼저 알고 너 먼저 깨쳐야 이 세상의 섭리를, 우주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느니라.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느니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세세생생을 그것도. 짧은 한 생을 보내면서 이 도리를 배우느라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생 동안에 이거를 배워서 만약에 익히고 깨달으면 세세생생에 그대로 자유인이니라.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알아야 내 마음을 네가 둘 아니게 알 수 있느니라." 이랬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이 도리, 정신계의 마음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마음을 발전시킬 수가 없고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정신계고, 누르기 전에 이렇게 갖다가 대기 전에는 물질계예요. 그래서 정신계에서 갖다가 누르면 물질계로 (전구를 가리키시며) 나오죠, 이렇게 불이 보이게끔. 그 차이예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떠 가지고야 집이 올라가지 그대로 집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을 잘하세요.

옛날에 이성계 얘기 했죠? 꿈꾼 얘기 말입니다. 꿈이 아무리 나쁘게 생각이 돌아가더라도 '허허! 이거는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아하! 이게 모두 거기서 하는 일이니 잘되게 잘 돌아가게 할 양으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탁 거기다 놓으면은 구정물이 나오다가도 새 물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그림자 같고 빛보다 더 빠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것저것을 막 바꿀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이것저것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바꿔서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인생은 사라지는 연기야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타계한 배우 신성일 입관 후
엄앵란 "인생은 연기" 한마디
'演技 · 煙氣 · 緣起' 의미 떠올라

명연기 위해서는 아상 버리고
無我 경지서 세상과 소통해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
인생은 사라지는 연기와 같아
모두 붓다의 연기론과 맞닿아

가을이 떠나가고 있다. 길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있다. 낙엽을 보고 멋을 느끼기보다 청소부의 고달픔을 먼저 생각하니 늙긴 늙은 모양이다.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인 신성일 씨가 지구별을 떠났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종로 극장가를 배회한 허리우드 키드였던 나에게 그의 떠남은 어떤 한 시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찌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는 한 시대의 별과 같은 로망이었다.

"인생은 연기야!" 이 말은 엄앵란 씨가 남편 신성일 씨의 시신을 입관한 후 한 말이다. 언론은 이 말을 표제로 뽑아 그녀의 애달픔을 전하고 있다. 남편을 '안의 남자'가 아닌 '밖의 남자'로 표현한 엄앵란 씨의 속앓이가 그동안 얼마나 심했을까. '인생은 연기야'라는 표현을 보자 언뜻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첫째로는 배우가 무대에서 펼치는 연기(演技)를 생각했다. 인간의 삶을 연극과 배우로 비유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해 엄청 많다. 명배우 최불암 씨는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오래된 대사에 관하여〉라는 긴 제목의 책을 펴내 배우로서의 인생살이를 회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불을 만들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연기(煙氣)를 생각했다. 언뜻 매우 허무한 표현으로 들린다. '인생은 헛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인생을 연기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세 번째로 붓다의 연기(緣起)론이 연상된다. 연기론은 불교 사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연기법에서 무아와 공의 사상이 나오고 자비 사상이 발현된다. 붓다가 밝혀낸 연기법은 경이롭고 위대한 사상이다.

지금도 연기적 인과론을 공부하고 생각할수록 그 심심미묘함에 현기증을 느낀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엄앵란 씨가 말한 연기는 바로 붓다의 연기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본 것이리라. 엄앵란 씨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스린 분으로 알려져 있다. 남편 신성일 씨를 보내면서 붓다의 연기를 생각했다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연기라는 단어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이곳에 붓다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명배우가 되고 명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상(我想)을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틀을 벗어나 타자가 되고 세상과 공감할 때 비로소 명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무아의 경지다.

또 인생을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에 비유한다면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 중 제1구게를 연상시킨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이 제1구게는 허무의 내용이 아니라 실존으로 가는 출발점일 것이다. 아마도 허무는 실존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붓다의 사성제 중 고성제가 으뜸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두가 붓다의 연기법과 함께하고 있다.

엄앵란 씨가 남편을 보내면서 참으로 명연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걱정은 욕심이다. 다들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산다.", "여기서 인연을 맺었기에 내 식구 내 새끼라며 애지중지하지만 결국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그리고 마초 같은 남편에게 내생에는 순두부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기원해주니.

이러한 엄앵란 씨의 모습이 아름답다. 팔순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맨발의 청춘'에 나온 그 모습처럼 아름답다. 건강하길 기원한다.

社說

소통과 화합의 조계종 거듭나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취임하면서 최근 진용을 갖춘 36대 집행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종도들의 관심은 원행 스님의 공약 실천에 쏠릴 것이 분명하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기간부터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중공의 실현을 강조해왔다. 총무원장 당선 직후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겠다"는 각오와 함께 안정과 화합,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 것을 천명했다.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소임을 두루 경험하고, 이를 조율하는 위치에 있던 원행 스님이 자신 있게 내세운 기조다.

이 같은 원행 스님의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 스님들까지 높이 평가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는 조계종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원행 스님 취임법회 축하 메시지에서 "원행 스님은 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교육, 환경, 복지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오셨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으로 조계종과 한국불교에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원행 스님 역시 이 같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부대중 모두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탁마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수개월간 조계종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세력으로 나뉘어 파화합을 연출했다. 이제는 불교도가 지혜를 모아 화합하며 사회 모범으로 거듭날 때다.

'신행앱' 이젠 활용이 중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2년 야심차게 추진한 연령별 마음거울 108앱 사업이 11월 14일 청년 마음거울 108앱 출시와 함께 완성됐다. 이번 108앱 출시로 어린이, 청소년, 중년, 어르신에 이어 2030연령에 맞는 수행 애플리케이션 라인업이 구성됐다.

마음거울 108앱은 청소년 교화를 위한 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발이 진행됐다. 2012년 먼저 개발된 어린이 청소년 앱은 청소년법회 현장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관건은 이후 개발된 중년, 어르신, 청년 마음거울의 활용도다. 많은 이들이 개별 수행에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용법과 활용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마음거울 108앱은 6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 친절한 문구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거울앱은 절하는 속도와 횟수, 다양한 배경음악과 음향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춰 템플스테이나 법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중 으뜸으로 치는 금강석은 다른 암석에 비해 단단하고 변질이 되지 않기에 가치가 높다. 그 자체의 가치보다, 금강석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의 가치가 더해진 것이다. 원석인 상태보다 세공된 금강석이, 그리고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금강석이 가치가 월등히 높다.

마음거울앱도 금강석과 같다. 잘 만든 앱일수록, 적절한 곳에서 잘 활용되어야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젠 포교원과 불교문화사업단, 그리고 제방 사찰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한 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이 남긴 것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진행했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이 올해 제15회 공모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지원사업 수상자로는 방정란 박사(독일 함부르크대)가 번역부문에서 이름을 올렸다. 박사논문 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2023년까지 미출간된 박사논문 · 번역물들에 대한 출간 작업이 끝나면 지원사업은 최종 완료된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박사학위논문 지원과 번역 부분으로 나눠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박사학위논문 19명, 번역 19명 총 38명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지원금과 더불어 논문 및 번역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는 것이었다. 박사학위논문은 2008년부터 출판지원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9명이 자신의 학위 논문이 단행본으로 묶어 나오는 수혜를 입었다.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불교연구총서'라는 시리즈로 발간된 총서는 현재까지 15권이다. 앞으로도 12권의 논문과 번역서가 더 발간돼야 한다.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4억 7천여 만원이 투입된 인재불사다. 향후 5년동안 이뤄지는 출판작업 소요 예상비용 8천만원을 포함하면 약 5억 5천만 원이 약 20년 동안 소장학자들에게 지원된 것이다.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의 논문과 번역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것은 자신의 학술활동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지원 사업을 거쳐 간 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불교학계 전반에서 이제는 중진학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인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김성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세친석과 무성석 역주〉로 제1회 지원사업 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계율 전문 연구자로 최근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열반경 연구〉로 제7회 번역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명법 스님(구미 화엄탑사 주지)과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 전공 교수,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는 제4회 박사학위 부문 수상자다. 본지 필진인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도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로 제3회 지원사업 박사학위 논문 부문을 수상했다.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회 회장인 법상 스님, 성열스님(강남포교원) 등 10여 명의 스님이 마음을 내고 50여 명의 신도가 지원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들이 줄고, 재정적 어려움이 이어졌다고 한다. 사업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흐지부지하게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시한과 계획을 정해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업회 관계자는 "의미있는 곳에서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면 한다. 사업회 측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다"고 했다.

소장학자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젊은 학자들의 활동 영역 하나가 줄었고, 〈열반경 연구〉 · 〈불교의 중국정복〉 등과 같은 중요한 번역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지원사업의 마지막이 아쉽고 아쉽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GREEN EARTH

녹색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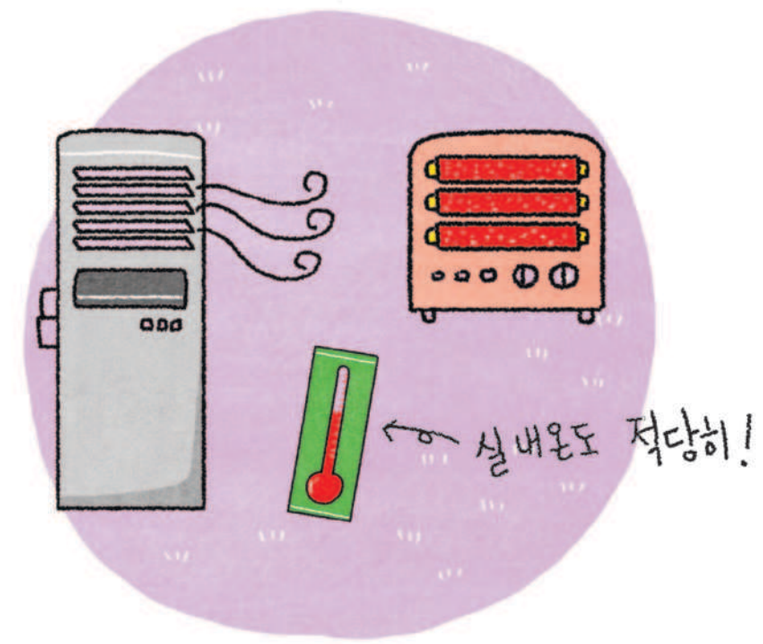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생활 속 마음챙김, 행복의 지름길



아남 툽텐 린포체(Anam Thubten Rinpoche)는… 티벳에서 태어나 티벳 불교의 닝마파 전통에서 수행했다.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의 대부분을 사원에서 보내며 라마 추르로(Lama Tsurlo), 켄포 쵸펠(Khenpo Chopel), 라마 갈왕(Lama Garwang)과 같은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명상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다르마타 재단은 미국을 비롯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50여 곳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으로 2년 과정의 '다르마 리더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행복수업 초청으로 첫 방한한 이후로 매년 한국을 찾아 법을 전하고 있다. 린포체는 특히 한국의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청년들도 린포체를 따르고 사랑한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티베트 스님의 노 프라블럼〉, 〈알아차림의 기적〉, 〈모든 순간 껴안기〉가 있다.

특별인터뷰 **아남툽텐 린포체** (다르마타 재단 설립자)

세첸코리아 초청 방한 행사 가져

12월 7~8일 국제선센터 강연

9~14일 백담사서 수행 이끌어

로종수행 · 마음의본성 지도

티베트 주요 스승에 사사

1990년대 미국서 전법

50여 국가 수행 승가 지도

"한국 불교수행 대중화되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구사회에서는 티베트 불교 열풍으로 칭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티베트 스님들이 대중교화에 나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티베트불교가 전파되고 있다.

티베트불교의 전파에는 세첸코리아와 아남툽텐 린포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첸코리아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아남툽텐 린포체 초청 티베트 로종 수행 강연회와 함께 9~14일 인제 백담사에서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한국 대중들을 지도할 아남툽텐 린포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미국에서 다르마타재단을 세워 티베트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2014년 첫 방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롱첸닝틱, 쬐 등 다양한 금강승 수행을 전하고 있다. 그가 한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주로 로종 수행을 한국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불자들은 이 로종 수행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로종 수행의 핵심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로종은 인도 아띠샤(Atia) 존자에 의해 생겨났지만, 주로 티벳 불교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종은 마음 훈련으로 번역이 됩니다. 로종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의식을 변화시키고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과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불행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과학이나 철학, 심리학에서도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행복에 이를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완벽한 답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고통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또한 삶의 의미에 이르는 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로종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잘이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생각 패턴이나 자기감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의 습관을, 정신적인 습관을 잘 모릅니다.

로종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업의 구조와 심리의 구조를 알게 됩니다. 이런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고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혐오 같은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종의 첫 부분으로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알아차림을 수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혜택이 없는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해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종의 두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고 순수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행과 마음수행 없이는, 놀라운 선물 같은 마음이 있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훌륭한 보석이 있거나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주 훌륭하고 기능이 뛰어난, 잘 날 수 비행기가 있는데도 그 비행기를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고 무량한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고 광범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종은 마음의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물 같고 은혜 같은 마음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마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종 수행은 불교 수행으로 시작되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건,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그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마음 훈련 8구절을 활용하고, 그 마음 훈련 8구절의 풀이를 할 것입니다.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님께서 일상에서 의식의 전환을 통해 느끼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A: 불교 수행의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벳 불교 수행의 주요 목적은 마음의 본성에 깨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가장 깊고 심오한 차원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승려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마음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 스승들은 마음의 본성을 내면의 부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타가따가르바, 여래장이라고도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한월법장의 선법사상

B5
문화
동국대박물관 2018 특별전시
'전단지향–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B6
학술 · 문화재
동국대 ABC사업단,
〈용암당유고 · 괄허집〉 발간

수행 통한 '자비' 발현, 사회 갈등 해소

'아남툽텐 린포체' B1면에서 계속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본성인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대체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의식의 표면입니다. 생각과 감정 말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파도가 아닌 신성하고 위대한 바다에 비유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표면에 그렇게 빠져있고 고착되어 있으면 생각과 감정이 마음의 본성의 표현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면과 마음의 본성을 구별할 줄 모르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실인줄 알고 실상인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믿기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더 생생하고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거대한 철학이라서 그 개념들을 아주 몇 년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안내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안내하는 선생님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명상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갑작스럽게 마음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본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고 심오하고 평화롭고 항상 있는 마음자리를 깊이 통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저 파도뿐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엉키지 않게 됩니다. 뒤엉키지 않는 것을 배우면 생각과 감정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본성에 깨어나고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일상생활에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Q: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계속 수행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밖에도 현대인들이 쉽게 수행하기 위한 수행법은 따로 있을까요?



A: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오래된 습관으로 반응하거나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와 공격적인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용기, 평등심과 이해로 접하면 마음의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쉬운 수행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알아차림 수행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접하기도 쉽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행입니다. 여러 가지 경계와 벽을 무너지게 하는데요, 종교적인 벽 같은 것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 명상에 대한 유익한 자료도 많고 다양한 종류의 명상 안내들도 많아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Q: 로종 수행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비심의 확장과 공성을 깨달으면 결국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불교 수행이 개인의 체험에 끝나지 않고 사회에서 자비실천으로 발현되는데 스님께서는 이러한 실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교계가 특히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티베트 로종은 의식 전환 수행법
자비심 바탕해 사회적 실천 강조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 조언도
"새 환경 적응해야 살아남아"

A: 어떤 사회라도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비심이 없는 사회는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사회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사람 사이에, 문화 사이에, 정치적 단체 사이에 서로 판단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화가 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게 되고, 판단을 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실천하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치유 할 수 있고, 세상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매일 같이 자비심을 실천한다면, 화를 덜 내고 판단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Q: 티베트불교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사회에서는 티베트 불교 열풍이 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구체적인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티베트 불교 열풍이 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불교계가 티벳불교계에 본받아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티베트불교가 세계적으로, 서양인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1960년도부터 여러 티베트 스승들이 온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스승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교의 가르침, 이 아주 소중한 선물을 세계와 나누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보살계에 해당됩니다. 보살계는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접해서 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불교가 어떻게 티벳 불교를 본받을 수 있냐고 하면, 미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스승들을 세계 여러 국가에 보내 다른 문화와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많은 비범한 한국 스승들이 다른 나라로 갔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Q: 아남툽텐 린포체께서는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 다르마타 재단을 세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 명상을 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또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A: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꽤 편하게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사람을 이해하기나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차이였습니다. 서구문화는 불교문화가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불교문화가 근간에 있어 사람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도 있고, 새롭게 문화를 소개하거나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주 기초부터 불교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찰과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보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소개할 때 이미 있는 전통이나 지식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많습니다.

Q: 명상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작용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런 명상을 포교나 전법의 일환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네.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상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 같은데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종교적인 수행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명상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 역사와 철학적 배경 같은 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요. 명상의 배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Q: 한국에는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수행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간화선은 현재 대중적인 저변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대중화 관점에서 한국불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제언해 주십시오.

A: 한국 불교는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답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위대한 스승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인과 사상가와 저자들이 나왔죠.

한국 불교가 다른 불교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불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불교가 사랑과 지혜에 기반을 둔 전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 스승들이 새로운 시대와 현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불법을 새롭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나 티벳 불교나 살아 남으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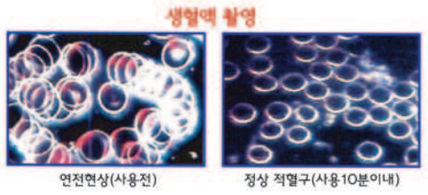
21세기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겪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이슈가 무언지, 경제적인 이슈가 무언지를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 발모촉진 / 검 버 섯 / 제거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충치예방과 입냄새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

화두 참구 중시, 五宗再燦 주창

〈오종재찬〉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㉑ 한월법장의 선법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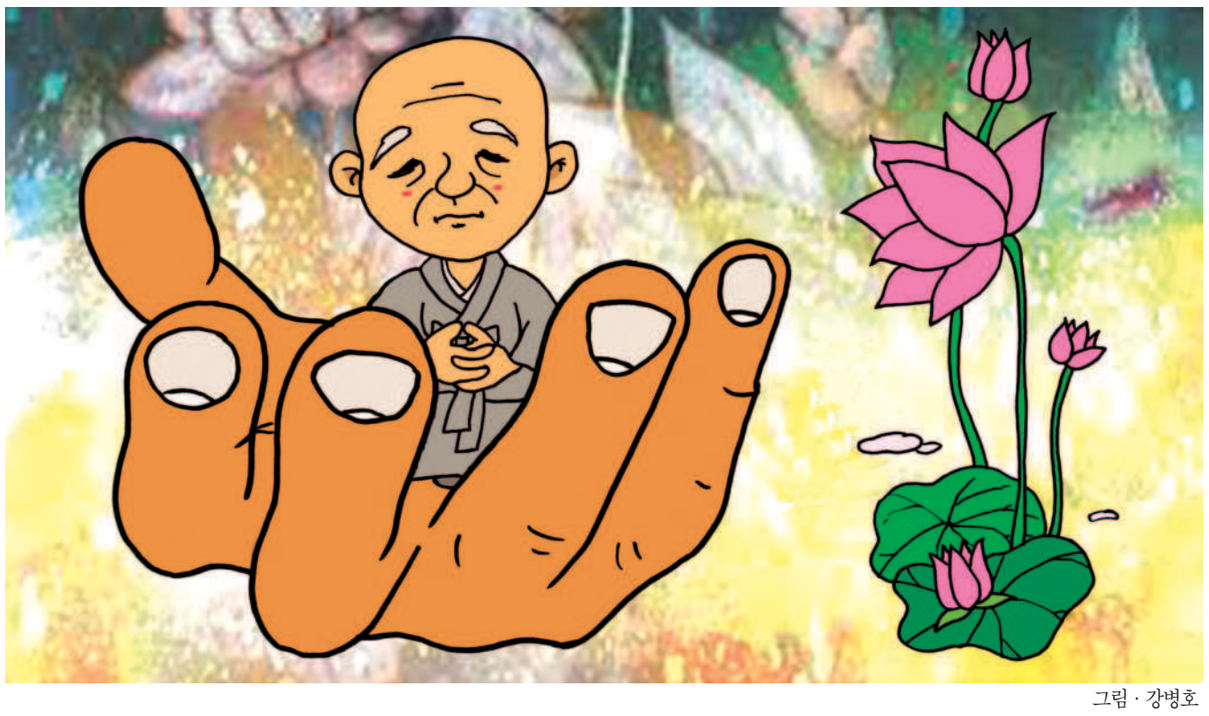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한월법장(漢月法藏 · 1573-1635)은 명대의 고승으로 자는 한월(漢月)이고 호는 우밀(于密)이며 만년에 천산(天山)으로 고쳤다. 속성은 소(蘇)씨이고 무석(無錫)인이다. 대대로 유학자 집안의 출신으로 소년시기에 좋은 교육을 받았다. 15세에 덕경원(德慶院)에서 출가를 했다. 19세에 득도하였다. 그 후 불교에 대한 연구 및 선종의 어록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교와 선학의 관계를 융합하는 것을 중시하기도 했다. 또 그는 29세 때 운서주굉(雲棲袾宏)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으며, 아울러 운서주굉이 새롭게 각본(刻本)한 〈고봉어록(高峰語錄)〉을 보고 "이를 읽는 것이 마치 옛 물건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였다. 30세를 시작으로 고봉원묘의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를 참구했다. 수년 후에 '두루 옛사람들의 어록을 사서 열독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북송 때의 혜홍각범(慧洪覺範)의 저작을 좋아하였다. 37세 때 금릉(현재의 남경)의 영곡사(靈谷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42세 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목(天目 · 고봉원묘)으로부터 인심(印心)을 삼았으며, 청량(淸涼 · 혜홍각범)으로부터 인법(印法)을 삼았으며, 진사(眞師 · 스승)는 곧 임제이다"고 하였다.

한월법장은 46세에 이미 명성을 얻었고, 그를 참방하고자 하는 선승과 사대부 참학자들이 멀리서 앞을 다투어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다고 한다. 곧 '제창무허일(提唱無虛日 · 쉬는 날이 없다)'을 초래했다. 다만 그는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정식으로 선법의 인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정석(不正席), 불승좌(不升座)하였다. 즉 그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좌를 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옛 선사들은 스승의 인가 없이는 함부로 법좌에 오르지 못했으며, 반드시 스승의 인가를 거쳐서 비로소 법석을 펴고, 위치를 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53세에 금율산(金栗山) 광혜선사(廣慧禪寺)의 밀운원오(密云圓悟 · 1566-1642)를 스승으로 삼고 바로 밀운원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밀운원오는 인가를 주고 바로 한월법장에게 '제일좌(第一座 · 처음 정식으로 법상에 오르다)'하게 하였고, 동시에 한월법장을 법제자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해에 한월법장은 임제종의 전법종사의 신분으로 종풍을 선양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상숙삼봉청량원(常熟三峰淸涼院), 소주북선대비사(蘇州 北禪大悲寺) 및 항주, 무석(無錫), 가흥(嘉興) 등 8곳에 사원의 주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62세에 입적을 했으며, 홍인(弘忍), 홍예(弘禮), 홍저(弘儲) 등의 제자가 있으며, 어록으로 〈삼봉장화상어록(三峰藏和尙語錄)〉이 있다.

한편 한월법장은 유학에 정통했던 관계로 사대부 관료들에게 매우 추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적지 않은 사대부 관료 문인들과 교유를 했고, 특히 문인 동기창(董其昌 · 1555-1636 · 명나라 후기 대신 유명한 서예가 화가)같은 사람과도 왕래를 했다. 때문에 그가 각지에서 주지를 역임할 때 이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동시에 그는 사원을 중수하고 경제를 건설하면서 농선(農禪)을 장려하기도 했다.

또 그의 사상적 세계를 살펴보면 그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약간은 자유분방한 선법체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선법체계의 관점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관점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비록 그가 밀운원오(密云圓悟)로부터 법을 인가받았지만, 선에 대한 견해는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게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한월법장이 일찍이 밀운원오에게 자기의 관점을 표명한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삼봉장화상어록(三峰藏和尙語錄)〉에서 "심은 고봉(高峰元妙)으로부터 얻었으며, 법은 적음(寂音 · 혜홍각범)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다시 두 가지의 법맥을 발원하고, 합해서 임제정종을 일으켰다…, 장차 (임제)운문, 위앙, 조동, 사가(四家)로 하여금 먼 것을 가까이 이어서, 오종을 다시 찬란하게 했으며, 세세생생 지속적으로 이어서 이 맥을 단절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선법사상에 있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오직 적통계승과 한 가지 종파의 선법만 계승하는 형식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기타 종파도 함께 흥성하는 오종재찬(五宗再燦 · 오종이 다시 빛나다)을 주장 했다. 때문에 그는 고봉원묘의 영향으로 화두 참구하는 것을 중시 했으며, 혜홍각범의 영향으로 '임제종지'와 〈지증전(智證傳 · 혜홍각범의 찬술)〉을 중시하면서 삼현삼요(三玄三要)설을 충분하게 발휘하기도 했다.

한월법장의 중요한 선법체계의 기본바탕은 간화선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간화선은 북송시기의 대혜종고가 발의하고 발전시킨 수행법의 하나이다. 비록 한월법장이 간화선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법체계를 수립했지만,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답습을 한 것은 아니며, 약간의 새로운 관점을 전개하였다. 먼저 그는 화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였는데 "이른바 화두라는 것은 곧 목전의 하나의 일이고 하나의 법이다. 범인은 평상시에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을 따라서 임운하면서, 천 가지를 생각하고 만 가지를 헤아린다. (이것은)바른 생사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목전에 이르니, 문득 9종의 견해가 생긴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고로 조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사일물(一事一物) 상에 앉아서 9종의 지견을 끊게 해서, 특별한 길로 갈 것을 제시하였다. 고로 이것을 간화선이라고 이른다"고 하였다. 화두는 원래 공안의 어구 하나를 의심하는 문답(問答) 혹은 답어(答語)를 가리킨다. 한월법장은 장차 평상의 일사일물(一事一物) 상에서 간화선이 원래 지니고 있던 틀에 박힌 융통성 없는 형식을 타파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부하고 유연성 있게 변화시켰다. 또 그가 강조하기를 "화두를 간(看)하는 것은, 간심간정(看心看淨)이 아니다. 리(理)를 간(看)하고 현(玄)을 간(看)하는 것이며, 비록 마음구덩이를 여의나, 오직 일상(事)을 간파하면(꿰뚫어 본다), 이른바 이 일이 구경에는 견고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정통적인 간화선보다는 실천의 공능을 더 강조한 것이다.

스승 밀운과 견해 달라
자유분방한 선법체계 추구
"선종 오가는 원상 각각의 일면"

한편 그는 유식사상을 간화선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참선은 '식신용사(識神用事 · 의식체)'의 과정을 배척했다고 여겼다. 이른바 "심의식(心意識)을 여의고 참선을 하면 범부를 벗어나서 성로(聖路)를 배우는 것이다"고 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그의 어록 〈삼봉화상어록(三峰藏和尙語錄)〉 제15권의 〈이심의심설시선자(離心意識說示禪者)〉와 〈이심의식변시선자(離心意識辨示禪子)〉의 단편 문장에 집중적으로 찬술하였다. 그는 대혜종고가 유식사상인 '전식성지(轉識成智)'를 해탈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에 관해서, 심의식(心意識)은 바로 생사윤회의 근원이 되며, 일체 수행도 모두 이 심의식(心意識)을 여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식신(識神)작용을 조복할 가장 신묘한 방법으로 화두 참구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여겼다.

한월법장은 간화선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간화선을 척도로 삼으면서 송, 원, 명 이래로 전통적인 선법수행 몇 가지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좌선만 하고 화두는 간하지 않는 것을 고목선(枯木禪)이라고 하며, 또 망회선(忘懷禪)이라고 한다. 혹은 좌선하는 가운데 오직 소소영영(昭昭靈靈)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것을 묵조선이라고 한다. 이상은 모두 사선(邪禪)이다. 앉아서 지관을 짓는 자는 성적(惺寂)을 서로 대립(배척)해서, 리(理)를 관하고 사(事)를 관하는 것으로, 비록 천태정맥(天台正脈) 및 여래정선(如來正禪)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식신의 작용(識神用事)으로, 소조(所照)에 즉한 경계로서, 명근(命根)을 끊기가 어려우며, 능히 꿰뚫어서 벗어 날수 없으며, 많게는 사선팔정(四禪八定) 및 5십종음마장에 떨어진다. 식신을 쓰는 연고이다"고 했다. 즉 그는 고목선(枯木禪), 묵조선 및 천태종의 지관쌍운(止觀雙運)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 이유는 고목선은 영성(靈性)을 잃어서 마치 사수일담(死水一潭 · 연못 물, 썩은 물, 흐르지 않는 물)과 같다고 했으며, 묵조선은 자기를 비추는 것으로 아집(我執)의 표현이라고 여겼고, 천태의 지관쌍운은 심식작용을 의지한 것으로 또한 구경이 될 수 없다고 여겼으며, 또 문자선과 봉활선(棒喝禪 · 때리고 소리치는 것)을 지탄하기도 했다.

한월법장이 비록 밀운원오의 법을 계승했지만, 다만 그는 진정으로 밀운원오에게 득법(得法)했다고 할 수 없다.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그의 선법사상은 장기간 그가 스스로 수행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와 밀운원오의 사상은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선종의 5종(위앙종 · 조동종 · 운문종 · 법안종 · 임제종) 종지(宗旨)에 대한 문제를 보는 관점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스승인 밀운원오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전개했던 적이 있다. 그의 저서 〈오종원(五宗原)〉에서 주장하기를 하나의 원상(圓相)은 천불 만불의 근본이 되며, 다만 선종의 오가는 '원상(圓相)'의 각각의 일면이 되며, 오직 임제종만이 정종(正宗)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승인 밀운원오는 그의 관점을 반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판까지 하였다. 또 밀운원오는 오가의 종지는 오직 하나로서 바로 '조계정맥(曹溪正脈)'이라고 하면서, 한월법장을 '외도종자(外道種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월법장의 제자 담길홍인(潭吉弘忍 · 1599-1638)은 자신의 저서 〈오종구(五宗救)〉에서 스승인 한월법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한월법장과 홍인이 입적한 후에 밀운원오는 〈피망구략설(辟妄救略說)〉을 지어서 논쟁을 이어갔다. 또 이 논쟁은 계속해서 청나라 옹정황제 때까지 이어졌으며, 최후에는 옹정황제가 한월법장을 배척하고 비난하면서 마침내 이 논쟁은 역사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오종의 선법을 통섭한 것은, 사실은 대혜종고의 간화선이다.

법장은 또 간화두(看話頭)와 참청(參請)을 결합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다시 화두를 간하되 참정을 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다시 참정을 집착해서 화두를 간하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 모두 불균형을 이룬다. 어찌 화두 의심처를 향해서 반복해서 스스로 간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참구하고, 이와 같이 간하면, (得悟)얻지 못한다고 근심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참청(參請)'은 참선하는 사람이 밖을 향해서 참구하거나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화두를 간하는 것은 완전히 내성(內省)을 살피고 관찰하는 공부이다. 그는 득오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밖을 향해서 참학하는 것과 내면으로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보완하면 더욱더 공부가 원만해진다고 여겼다.

〈동국대 강사〉





이번주 신간은… 〈초발심 자경문 및 치문〉 의진 해돈 역해/불교시대사 펴냄/1만 6500원

행자 생활을 마치면 처음 접하는 불교 입문서로 출가 수행자의 기본 교양서이다. 이 책은 출가 수행자의 계율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출가자로서 수행의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분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중생 제도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가자의 기본이 되는 〈초발심 자경문〉은 행자생활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행자가 되기 위한 기본 교육의 첫 교재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 ~ 11/15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청정도론 (비쑷막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삶이 지금 어딜 가느냐고 불러세웠다	원영스님/이소명	수오서재	7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밝은 사람들 총서 13)	김성구 외 4인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그대 지금 간절한가 (무문관 일기)	동은스님	모과나무
4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원효/공파스님	운주사	9	업의 그릇을 비워라	무명스님	쌤앤파커스
5	오늘, 담배빠다 한구절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불광편집부	불광출판사	10	자현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자현스님	불광출판사

아시아 문화와 역사 알기 위해 꼭 필요한 佛教



자현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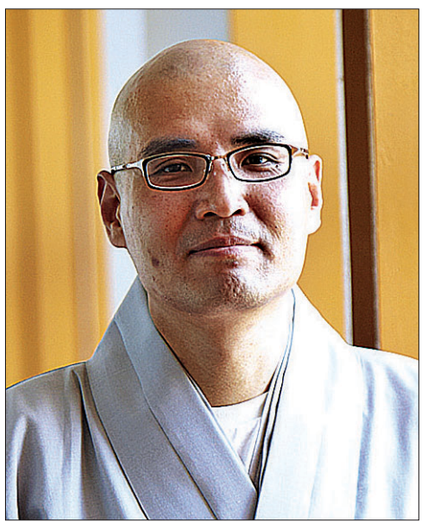
자현 스님 지음/불광 펴냄/1만 9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쉽게,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 로마 신화'와 '기독교'이다. 그리스 · 로마 신화를 알아야 서양의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 전반을 이해하기 쉽고, 16~17세기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유럽의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상이 서양의 경우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라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불교'라고 할 수 있다.

2,600여 년 전, 아시아의 한 지역인 인도서 발생한 불교는 오늘날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에서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하나의 사상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불교의 전래와 공인은 곧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인 중국과의 교류를 의미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시켰으며, 또한 사찰이나 탑, 불화를 조성하면서 건축 양식과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동아시아의 주류 사상이 되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 불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나 문화를 더욱 쉽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불교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불교를 전한 중국, 그리고 불교의 시원인 인도까지 불교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알아야 한국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 바탕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도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100가지 핵심 장면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전래되고, 또 각각의 나라서 어떻게 변화, 전개됐는지를 서술한다. 그동안의 불교사 관련 도서는 인도나 중국, 혹은 한국 등 한 나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이해하기 힘들거나 지나치게 많은 나라를 한 권에 다루느라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선별해 쉽게 소개한다. 그래서 불교의 발생지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중국, 그리고 한국의 불교사를 차례로 서술한다. 불교가 인도를 거쳐 중국, 한국으로 전파된 것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한 것이다.



자현 스님

인도서 중국, 한국까지 100가지 장면
핵심내용만 요약해 간추린 불교사
역사와 문화, 사상 등 한 권에 담아

100가지 핵심 장면들은 우선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배열돼 있지만, 엄격히 말해 시간 순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아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책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정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배경이 되어 인물이나 사상이 대두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나 반란 등으로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는 정토 사상이나 미륵 사상과 같은, 현실을 넘어 이상 세계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법칙'을 찾을 수 있지만, 지역적 ·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현상의 배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한국에서 '상호평등과 대화합'을 말하는 화엄종이 지배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이유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측천무후라는 여성 황제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에는 삼국 통일 이후 어지러운 나라를 하나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연관성에 주목한 서술을 읽다 보면 낱낱으로 분절되어 있는 '장면'을 읽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서 박사 학위가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아직 출판하지 않은 원고가 노트북에 가득한 저자로도 알려진 자현 스님을 흔히 '전방위 지식인'이라고 칭한다. 저자가 받은 박사 학위도 철학, 미술사학, 역사교육 등 한 분야에 국한돼 있지 않으며, 그동안 발간한 저서 역시도 철학적,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시각으로 불교를 다루어 왔다.

이 책도 그동안 발간된 저자의 책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불교사'를 소개한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라는 한정된 주제를 설명하면서도 그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상사, 그리고 주변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그동안의 불교사나 불교 사상을 다루는 책들이 단편적이었다면 이 책은 총체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런 총체적인 시각이야말로 이후 세부적인 파악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20여 개의 도표와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 지역을 친절히 집어 보여 주는 13개의 지도, 그리고 '베다와 카스트' '자이나교' '팔경계' '불교정화운동'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기사와 '인도의 사찰과 한국의 사찰의 차이점' '중국 역사에서 장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소개하는 '더 알아보기' 등을 통해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불교에 대한 공부는 물론,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훌륭한 종합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박찬욱 등 집필/운주사 펴냄/2만 2천원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에게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적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인간은 매순간 생각 하고 그에 따라 행동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자연과학, 심리학서 바라본 '생각의 본질, 특징,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성찰'이다.

생각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내용이다. 하지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활용하고 있는가? 생각과 바람직하게 관계하는 방식을 터득해 적용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키길 권하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각이란 것이 여러 측면과 층위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 키울 것인가, 없앨 것인가'를 밝히자면 우선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이란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이 느낌과 본능, 의지와 욕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의 구조와 층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에 대해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성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불교에서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이필원은

생각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내용
생각의 본질, 특징, 구조 등 종합적 성찰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이 가능한가?〉에서 우선 초기경전 니까야서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는지를 '생각'에 해당하는 여러 용어의 용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중에서 특히 상(想)과 사(思), 사유와 기억(anussati)을 불교 수행론의 문맥서 상세히 해명한다. 그는 초기불교에서는 생각이 여실지견을 가로막기에 생각을 제어 및 지멸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무아(無我)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망상을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고 논한다.

선불교에서의 생각의 문제를 논하는 오용석은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에서 생각은 일종의 망상이며, 새를 가둔 병 또한 생각이 빚어낸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마음도 세계도, 새도 병도 모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려낸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는 이미 자유롭다. 그러므로 생각은 버리거나 키우거나 하기 전에 그 자체가 이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한다.

서양철학 분야에서의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박찬국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서 서양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성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스스로 생각의 주인으로서 매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 왔다고 말한다. 특히 이성의 바른 성찰을 위해 그것을 가로막는 이기적 욕망이나 그릇된 시대적 · 사회적 통념의 극복을 중요시해 왔다는 것을 논한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각 주제와 내용들은 생각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의 의미와 생각의 범위, 생각의 힘과 그 한계를 논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전단향 품은 '목조' 불교유물들

동국대박물관 2018 특별전시
'전단지향-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불교유물 중 목조유물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동국대박물관(관장 김봉건)은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국대 서울캠퍼스 내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전단지향(旃檀之香)-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 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나라 중요 목조불교유물들이 전시되는데, 동국대박물관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1891년 '석굴암중수상동문'과 국내에서 보기 드문 조선 후기의 '보타전' 목조실감을 포함해 총 39건의 유물 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불교를 상징하는 불상의 조성이 목조로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의 유물 중에는 불상을 비롯해 목조 불교유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목조'에 주목한 관련 전시가 없었던 점을 또한 주목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야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 도리천에 올라갔을 때, 코삼비국의 우전왕은 부처님이 그리워 처음으로 불상을 조성했다. 그 때 쓰인 것이 '전단(旃檀)'이라는 나무였다. 이후 전단은 불상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단의 향은 병든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으로도 인식되어왔을 만큼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로 불리고 있다.

우리 불교에서도 역시 나무는 불교문화를 꽃피운 '재료'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신앙의 형태와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나무는 사찰의 불전과 가구, 불상, 불교 공예, 경판 등에 사용하는 불가결의 재료이며 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형물 제작을 위한 최상의 재료이다. 이번 전시는 '전단지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나무로 만든 불교유물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동국대박물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귀중한 목조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물은 고려말-조선초로 추정하는 목제 사리호 및 사리함,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조선 1620년 목조보살입상, 조선 후기 아미타삼존불감과 목조나한상, 목조동자상, 경판, 다리니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동국대박물관이 마련한 전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마음에 부처님을 새기다'는 경전을 조성하기 위한 '경판'을 테마로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경전은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특히 나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판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리니경〉(8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꾸준히 제작된다. 해인사 소장 고려 〈팔만대장경〉은 거란과 몽고의 침략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집대성하여 조성된 목판이며, 조선시대에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다양한 경전이 왕실의 간경도감이나 전국의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목조보살입상


보타전 목조감실


송광사 흑단목경패(보물 175호)

△제2장- '깎고 다듬다'는 '불상'을 테마로 한다. 부처님의 모습을 깎고 다듬는 일은 불심을 일으키는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만드는 재료는 돌, 나무, 흙 등 다양하며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만든 이의 불력을 통해 완성한 부처님의 모습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현할 수 없는 숭고한 불사이다.

△제3장 '꾸미고 장엄하다'는 불단과 불단 위에 올려진 불패, 소대, 경장, 촛대 그리고 상부의 닫집 등 불전 내에 봉안된 '불교공예품'들을 테마로 한다. 현존하는 대다수 불전 내의 불교공예품들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장엄과 실용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제4장 '마음을 담아내다'는 출가자가 사찰에서 수행하거나 불교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불구(佛具)를 테마로 한다. 불구는 주로 금속이나 나무로 제작된다. 이 때 제작된 불구는 의식법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석장, 경상, 목탁과 염주 등은 출가자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용구로써 나무로 제작한 예가 상당수 전한다.

이번 전시의 대표유물로는 〈'보타전(寶陀殿)' 목조감실〉 〈목조보살입상〉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송광사 목조경패〉 〈석굴암중수상동문〉 등이 있다. (02)2260-3722.

사라져가는 '마을'과 '사람'의 의미

이호신 특별전 '마을진경',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화여대박물관

사라져가는 마을과 사람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생활산수화'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온 이호신 화백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층 전시관에서 특별전 '마을진경'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대의 터-고창 상갑리 고인돌 마을에서〉(1991) 등 국내의 여러 지역과 사람들의 모습 뿐 아니라 고구려 옛 유적지인 중국 집안과 환인지역을 그린 〈오녀산성의 밤〉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호신 화백의 '마을' 속엔 전통 촌락들과 그 성을 담고 있는 자연의 유기적 관계가 진하게 스며있다. 그것은 작가가 현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자료 등을 이용해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에 올라 그곳에서 바라보는 진경을 그리고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옮겨다니며 본 사람들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본 대로 그려낸 그림은 생물학적 인체의 눈과 공학적 기계가 담아낼 수 없는 작가만의 관점으로, 조선 후기의 화가들이 사생을 토대로 마음속에서 자연을 재구성했던 것처럼 산수와 사람의 마을을 재구성한다. 이호신 화백은 그 동안 사생과 사유를 통한 사의(寫意)를 추구하며 전국의 마을을 찾아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을 화폭에 옮겨왔다. 그는 마을의 참 모습을 그리고자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조감하는 종합적인 구도를 선보인다. 이는 작가가 추구한 새로운 마을의 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은 지난 2015년에 마을과 사람들을 그린 작품, 화첩, 스케치북 등 269점을 이화여대에 기증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이화여자대학박물관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증 작품(1990~2011)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마련한 전시다. (02)3277-3152. 박재완 기자


충주 단월 달래강의 밤

"우리 모두가 약사여래"

현정오 스님 개인전 '본래면목 노닐다'
서울 인사아트센터 11월 21~26일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연작 시리즈로 알려진 현정오 스님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아홉 번째 개인전 '본래면목 노닐다' 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스님의 그림은 보다 깊이 존재의 근원에 다가가려 애쓴 흔적들이다. 그리고 그 흔적의 중심에는 약사여래가 있다. 작가는 오랜 동안 지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약사여래를 그리며 무사히 지나왔다. 그래서였을까. 작가는 더욱 근원에 다가가고 싶어졌다. 작가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그림으로 말한다. 일체 중생의 고단한 심신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픈 고통을 치유해주는 약사여래불은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 모두라고.

이번 전시에 발표하는 작품은 모두 36점으로 약사여래불의 화현이 중생과의 관계성에 머물지 않고 삼라만상과의 교감으로 확장하여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이고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라는 커다란 외침으로 확장되고 있다. (02)736-1020. 박재완 기자


약사여래불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문학으로 중창불사 기록한 선사 문집

동국대 ABC사업단, 〈용암당유고 · 괄허집〉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 후기 사찰 불사를 문학적으로 기록한 두 선사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돼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시리즈인 〈용암당유고 · 괄허집〉과 사지자료집인 〈대흥사 편-④재정 관련〉을 각각 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고승들의 사상과 행적, 각 시대의 불교문화와 역사,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용암당유고 · 괄허집〉으로, 조선 영 · 정조대 설악산 신흥사와 문경 운봉사(현 김용사)에 주석하며 그 지역의 중창불사를 문학적으로 기록한 두 선사의 문집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용암당유고(龍巖堂遺稿)〉는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설악산 신흥사 내원암에 주석한 용암 체조(龍巖體照, 1713~1779)의 유고 문집이다. 문집에는 시 79편과 기(記) 3편, 잡저(雜著) 1편이 수록돼 있다. 시 작품은 사시사철 변하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담았고, 그 속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승려의 삶을 반영했다. 청담을 나눈 여러 선사와 설악산을 유람하는 지방 관리와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감흥이 담담하고 소박하게 표현돼 있다. 기문(記文)에는 설악산 신흥사의 중창불사와 관련된 발원문들이 있어 조선후기 중창불사의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묶인 〈괄허집(括虛集)〉은 조선 후기 영 · 정조 대에 경북 문경의 운봉사(현 김용사)에 주석한 괄허 취여(括虛取如, 1720~1789)의 문집이다. 문집은 2권 1책으로 1권에는 시 작품 126편이, 2권에는 문 3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특징은 수행의 자세나 선리에 대한 언급이 많으며, 산문은 주로 인근 지역의 사찰과 암자의 불사와 관련된 글이 많다.

아울러 그의 행장이나 문집의 서문을 보면 정범조 · 권상일 등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계승한 안동지역 유학자, 문인들과 깊은 친분을 나눈 것으로 드러난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일환

신흥사 · 김용사 불사 기록돼

대흥사 재정 문헌 자료집도

ABC사업단은 "〈용암당유고〉는 설악산과 신흥사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조선후기 불가 한문학의 구현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면서 "〈괄허집〉은 18세기 경북 내륙지역의 중창불사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제한적으로나마 18세기 유불간의 교섭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 소장된 귀중한 불교문헌을 조사하고 가공해 서비스하는 '사지자료집 시리즈'는 ABC사업단에서 발굴한 사찰 역사 자료를 영인 · 탈초 · 번역해 학계와 일반 독서계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출간한 〈사지자료집4, 대흥사 편-④재정 관련〉은 전남 담양의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흥사 고문헌을 본 사업단이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흥사의 사찰경제와 관련 있는 재정문서를 대상으로 했다. 재정관련 문서는 대흥사 소유 토지의 위치, 세수의 양, 부속물 등 대흥사의 경제 규모와 경영의 실제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여기에 수록된 문헌은 모두 13종이다. 이들 문헌은 사찰 운영의 실증적 자료로서, 해남 대흥사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ABC사업단은 "자료집 마지막에 수록한 '대둔사 성조소 일기'는 매우 심한 초서로 쓴 것을 탈초해 학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 문서는 1900년부터 1901년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대둔사의 건축사업 관련 출납 금액을 일자 별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당시 경제사, 생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실증적 자료"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소장학자 지원 방정란 박사 선정

불교학연구사업회 결과 발표…11월 21일 시상식

올해가 마지막 공모 사업

5년간 출판 작업 '마무리'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번역 부문에 방정란 박사(독일 함부르크대 · 사진)가 선정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회장 법상)는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번역 부문에 방정란 박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사 논문 지원 사업에는 해당자가 없었다.

올해 번역 지원사업 선정자인 방정란 박사는 〈빠라미따사마사(著 아리야슈라)〉 번역 계획으로 선정됐다.

아리야슈라의 〈빠라미따사마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각 장의 주제로 한 6개 장(paricceda)으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 불교 문학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육바라밀의 요약이라는 측면과 산스크리트 불교문학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번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시상은 오는 11월 21일 서울 역삼동 강남포교원서 열리며, 수상자인 방정란 박사에게는 1000만원의 번역 지원금이 전달된다. 또한, 번역 결과물은 이후 출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시작된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2023년까지 미출간된 박사논문 · 번역물들을 총서로 출간 작업이 이뤄지며, 출간이 끝나면 지원사업은 최종 완료된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학연구회, 〈깨달음 논쟁〉 출판본 발간



지난해 깨달음 주제 연찬

발표논문 13편 엮어 수록

불교에서 깨달음 논쟁에 대한 논문을 한데 묶은 연구서가 발간됐다.

불교학연구회는 최근 〈깨달음 논쟁〉 연구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깨달음 논쟁〉은 지난해 10~11월 3회에 걸쳐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의 연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논평들을 묶어낸 것으로 깨달음과 관련해 지역, 학파, 종파를 아우르며 논쟁 지점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인도 · 중국 · 티베트 등 지역, 초기불교 · 중관학파 · 유가행파 등 학파, 삼론종 · 천태종 · 화엄종 · 선종 등 종파에서의 깨달음 문제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김준호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등 전문학자 13명이 폭넓고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강점이다.

'인도 사상에서의 깨달음의 유형'에서는 불교를 배태한 인도에서 깨달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 학파와 종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선의 수행과 깨달음'에서는 깨달음이란 실천과 일치하는 선행(禪行)일치, 불이중도에 있음을 여러 조사들의 어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천태에서 바라본 깨달음'은 한국불교계에서 성철에 의해 제기된 돈오점수(해오)와 돈오돈수(증오)의 논쟁, 곧 해오와 증오의 문제에 대해 천태사상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천태의 '육즉'을 수행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을 엮은 불교학연구회는 "'깨달음' 문제가 스스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만,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는 명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교학적으로 혹은 수행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평화 위한 종교계 역할은

종교교육학회, 23일 추계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와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강대 김대건관 101호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종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종교학자들도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중국에서는 제프리 창(푸렌대), 일본에서는 가다오카 류(도호쿠대)가 발표자로 참가한다.

주제 발표로는 △선불교와 평화의 두 원천(안호영, 동국대) △중국 기독교와 동서평화의 과제(오동일, 장로회신학대) △3.1운동 정신에서의 유교(대종교)와 기독교(이은선, 세종대) △개벽종교의 평화사상(조성환, 원광대) △최시형의 생태학적 사유에 담긴 평화사상(황종원, 단국대)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철원애국단, 불교계와 접점 많다"

이경순 학예사, 불교사회硏 학술세미나서

기독교 주도 철원애국단

철원 도피안사서 결성돼

신상완 등 승려들도 참여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철원애국단과 불교계 항일운동의 연계성을 살핀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1월 16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에서 '철원애국단 사건과 불교계 항일운동'을 발표하고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불교계 인사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폈다.

철원애국단은 독립운동단체 중 규모나 활동 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한 한국독립애국단의 지방조직으로 결성부터 활동까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이 도피안사에서 결성하게 된 이유와 철원애국단 사건에 연루된 승려들의 행적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도피안사는 철원 지역의 대표 고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곳이었다. 특히 도피안사 중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도 강대용이 일정 수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순 학예사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강대용이 철원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애국단 활동에 관심을 안 기울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지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도피안사를 결성 장소로 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시 주지 홍월운 스님의 묵인과 결단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 사건과 관련된 불교 승려인 신상완, 김상헌, 이석윤의 행적도 살폈다. 특히 신상완은 철원애국단이 10월 제2만세시위를 계획 · 실행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이경순 학예사는 "신상완은 임시정부 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외를 오가며 상해 임시정부의 지시를 국내에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헌과 이석윤 역시 3.1운동을 경험했고,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3 · 1운동 1백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월 27일 '불교계의 3 · 1운동과 항일운동' 관련 5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㉒ 소년수 김용덕

“가난이 죄”… 아버지 살리려다 과실치사

15년형 선고, 김천소년교도소로
수감 7년만에 어머니와의 첫 면회
구명운동 전개해 그 해 연말 출소
“가난한 소년수들 정상참작 못받아”

흔히 “가난은 죄가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경우는 분명 있다. 13살 때 과실치사로 소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김용덕이 그렇다. 효심에서 비롯된 살인은 가난이 부른 살인이었다.

1980년대는 내가 소년 재소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은 시절이다. 개운사 주지 시절이었다. 절 가까이 김천소년교도소가 있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혼동한다. 죄가 비교적 가벼운 미성년들을 교화 교육하는 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는 사실상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에게 형을 집행하는 곳이라 수용경력도, 전과도 남는다.

1982년 어느 날, 김천소년교도소 교무과장이 내게 “저 애들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아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시 그 말의 참 뜻을 알지 못했다.

교무과장은 나에게 7년째 복역 중이라는 모범 소년수 김용덕(당시 20세)을 소개했다. 교무과장은 김용덕이 소년 재소자들 사이서 지도반장을 맡고 있으며, 양복 재단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성실한 청년이라고 했다. 김 씨의 첫 인상은 도저히 13살에 살인을 저질러 15년형을 선고받은 얼굴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김 씨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나는 김 씨로부터 사건 기록에 담기지 못한 김 씨의 사연을 직접 들어야만 했다.

김 씨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깡촌 출신이었다.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김 씨는 아버지에게 약 한 번 쓴 적 없고, 병원도 가보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다.

김 씨가 13살 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들쳐 업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김 씨는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엔 무작정 동네로 내달렸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만 했다. 그 때였다. 정신없이 동네 여기저기를 헤매던 김 씨의 눈에 쌀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보였다. 돈을 세고 있었다.

아버지를 살리겠단 일념에 사로잡힌 김 씨는 그 돈으로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당연히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그만 사고가 났다. 김 씨에게 밀쳐진 아주머니가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김 씨는 돈을 뺏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직후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스님, 어머니가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촌 노인네라 여기까지 찾아올 분도 못 됩니다. 죗값을 치르는 7년 동안 어머니 손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밝고 씩씩한 그의 얼굴 뒤에는 가난에 한 맺힌 눈물이 가득했다. 아들이 살인자가 된 충격으로 김 씨의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다. 김 씨는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가 일자무식에 돈도 없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그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김 씨의 고향인 전남 함평 면사무소에 연락을 했다. 김 씨 가정은 ‘극빈자’로 등록돼 있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자식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면서도 아들이 있는 쪽을 쳐다볼 뿐, 고향 밖을 한 번도 나오지 못한다는 딱한 사연을 전했다.

나는 곧바로 택시를 대절해 김 씨의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 김 씨의 고향집은 ‘폭탄 맞아서 내려앉은 집’ 같았다. 세상에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라한, 난생 처음 보는 집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라고 들은 그의 어머니는 80대로 보였다. 김 씨의 어머니는 ‘용덕이가 있는 곳에서 온 스님’이란 내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쓰러졌다.

태어나서 처음 타본 택시서 먼 길을 가는 내내 김 씨의 어머니는 울었다. “가난이 죄”라며 불쌍한 아들의 신세를 하염없이 털어놨다.

김 씨의 사연을 아는 김천소년교도소 교무과장은 모자 상봉을 위해 특별 면회실을 마련해줬다. 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보자마자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왜 할머니가 됐어. 손이 왜 이렇게 됐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엄마…”

나는 두 사람의 첫 면회를 주선한 그때 김용덕을 석방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눈물겨운 면회현장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기 직전인 김 씨의 집과, 출소한 김 씨가 재단사로 취직해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동시에 떠올렸다.

김 씨의 구명운동에 나선 나는 박정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탄원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을 알리고 동행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데다, 김천에서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박 의원은 고맙게도 자초지종을 듣고 ‘이런 일은 응당 해야한다’며 즉시 승낙했다.

법무부 장관실에서 나눈 대화는 잘 풀렸다. 그 해 연말에 석방된 김 씨는 내게 대구의 한 양복점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다는 김 씨의 전언은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웠다.

김 씨 출소 전인 1984년 봄, 김천소년교도소 모범원생 20명을 데리고 구미 금오공고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교내 불교학생회 학생들과 자매결연하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들 틈에서 이야기하며 웃던 김 씨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이전에 교무과장이 한 말이 떠올랐다.

“애들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아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소년수들은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집이 부유한 아이들은 재판 과정서 빠져나갔다.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는 아이들은 일말의 정상참작 없이 형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장의 말은 일종의 양심선언이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철창 차에 탄 소년수들과 교문에 서서 배웅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무과장이 느꼈던 바로 그 부끄러움이 내게도 몰려왔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㉑ 숭산 스님 · 엄남포 보살

우리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욱 어렸다. 인사를 드리자 스님께서는 ‘오직 모를 뿐’에 대해 말씀하셨다. 중국에서 1700 공안을 들여와 공부하는데 우리도 스스로 화두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다. 이제는 화두라는 단어를 이해하며 수행의 초입에 서 있다. 스님의 덕화를 기리며 생각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도반과 옛이야기하며 그때는 그랬지 하고 맞장구치며 파안대소하였다. “스님. 나뭇잎이 아닌 꽃잎에 새겨 보냅니다. 물에 던져버렸다고.”

하루가 무사해서 다행이고 하루를 잘 견뎌내서 대견스럽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어 고맙다. 꼬불꼬불 산길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다 늦은 시간이 되어 절에 도착하였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양주 보살과 같이 자겠다고 했다. 처음엔 잠시 산책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자 했는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나도 일상에서 구미(口味)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던 차에 내 마음을 살찌우는 밤이 되었다. 성과 속, 빛과 그림자, 볕과 그늘이 결국 하나인 체험을 하며 부풀어 오른 풍선도 공기가 빠진 풍선도 모두 풍선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되새긴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날 우연히 찾아오는 삶의 즐거움에서 진정한 보살을 보았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학 古가말씀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부처님과 가족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부처님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855-0108



〈가족편〉

BTN 어플과 BTN 불교라디오 올림 어플은 스마트폰(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 3270 3300 문의